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엄격해져야 한다.

사적인 감정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 한 번만 넘어가자고 말하겠지만

그 한번만이 거듭되면 모두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려 할 거야.”

“그 한번을 잘 이겨냈다...”

아버지는 삼촌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과 함께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삼촌에게 사과했다.

- 웹툰·카드뉴스 분야 대상 수상 작품 “추석에 온 손님” 일러스트 中 -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믿고

비껴들어 오는 검은 손을 잡을 때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믿고

속삭이는 검은 말들에 수궁할 때에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고 믿고

검디검은 순간들에 안주할 때조차

어깨에 내리는 하얀 눈꽃송이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세상은 눈 덮인 하얀 세상이라

고개를 주억거리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눈을 즈려뺐은 무수한 발자국이 나였다

- 시 분야 우수상 수상 작품 “발자국” 中 -

발간등록번호

11-1140237-000011-01

당신의 맑은 일상을 보여주세요

웹툰·카드뉴스 분야
대상 수상 작품



웹툰·카드뉴스 분야 대상 수상 작품 “추석에 온 손님”의 일러스트

공모전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양질의 청렴콘텐츠를 발굴하여 공직사회 및 민간 분야 청렴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공모 주제

- 청렴·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
- 내가 바라는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 청렴 핵심가치에 대한 생각 및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해석 등

발간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



올해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시·웹툰·카드뉴스 분야에서 수상한 작품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로 6회째 접어든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과 관련한 콘텐츠를 공모한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청렴은 다소 어려움이 느껴지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1,797편의 다양한 콘텐츠가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청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발족,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반부패·공정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3년 연속 상승하였고,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9년 만에 30위권에 재진입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욱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 시민 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더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재능을 발휘해 주신 모든 분의 열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품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안내해주는 이정표이자 등불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집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수기·시·웹툰·카드뉴스 각 10편씩 총 30편의 작품이 수록되었습니다. 입상하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작품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Contents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심사평

김현탁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006
김명희	한국소설가협회 전 사무국장	008
김지연	경민대학교 카툰애니메이션과 교수	014

수기

대상	일반 부문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018
최우수상	공직 부문	청렴은 당연한 것	024
우수상	공직 부문	청렴 나침반	032
	공직 부문	시키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038
	일반 부문	유령인간	046
장려상	일반 부문	나의 열일곱과 너희들의 열일곱	052
	공직 부문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058
	일반 부문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064
	일반 부문	청렴의 맛	070
	일반 부문	우리 동네 지킴이	076

시

대상	공직 부문	쉬리의 세계	084
최우수상	공직 부문	일편정심	086
우수상	일반 부문	아버지의 낡은 지갑	088
	공직 부문	차단기	090
	공직 부문	발자국	092
장려상	일반 부문	청백리 문충공	094
	공직 부문	부끄럽지 않게	096
	일반 부문	아버지의 자리	098
	일반 부문	너밖에 없다	102
	일반 부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104

웹툰·카드뉴스

대상	공직 부문	추석에 온 손님	114
최우수상	일반 부문	부끄럽지 않도록!	134
우수상	일반 부문	받을 수 없어	152
	일반 부문	내일로	162
	일반 부문	아버지의 선택	182
장려상	공직 부문	부패와 바이러스	192
	공직 부문	알파카의 꿈	200
	일반 부문	종이 한 장 차이	208
	공직 부문	공직자 MBTI 유형별 저지르기 쉬운 부패 유형	216
	일반 부문	한순간의 유혹	224

심사평

수 기 분 야

한국현대문학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김 현 탁

청렴은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구조의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한다.

청렴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명료함, 실천의 확실성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관료는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청렴은 최고의 도덕적 기준이었고 덕목의 기본이었다.

이번 청렴수기 공모전에는 공직자나 공직을 거친 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가 응모했다. 응모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반인 응모 작품은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공직에 있었던 응모자는 공직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진솔한 사례들을 잘 보여 주었다. 다만 일부 응모 작품에서처럼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해 자세를 전환하기보다는 평소 ‘김영란법’과 무관하게 청렴의 의무를 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법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강제의 수단이다. 청렴의 실천이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켜져야 한다면 모순이다. 특히 공직자는 법 이전에 스스로의 마음에서 청렴이 우러나와야 한다.

현대의 세태는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시대에 사회 활동 전반에 숨어 있는 물질이나 재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수행이다. 수기를 통해 보여준 모범 사례처럼 평소에 육화된 의식 속에서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응모자들의 빛나는 의식이 수기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파될 때, 수기의 사례들은 참 진리처럼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기 작품도 읽히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구어체 표현이나 속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심사평

시 분야

한국소설가협회 전 사무국장

김명희

시는, 마음 가는 대로 쓰는 일반 글과 다르다. 시와 소설과 수필의 영역을 나누듯, 시는 ‘시다워야 하는 그 모양새’가 있다. 시는 문학 중 하나이고 그것만의 색채와 특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접수된 다양한 원고를 앞에 놓았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나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다. 시는 대체 무엇이고, 좋은 시란 과연 어떤 시를 말할까?

좋은 시는, 익숙한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시선이 묻어난다. 누구도 못 본 세계를 찾아내고 그 영토를 독자에게 보여주는 시가 좋은 시다. 시인이 찾은 또 다른 세계를 새롭게 묘사하거나 형상화하고 표현해야 한다. 청렴이 상징하는 익숙한 것들을 뚫고 들어가 제2, 제3의 신선한 청렴을 표현한 것이 좋은 시가 아닐까? ‘청렴’이라는 상징에 지루해진 독자마저 단숨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시. 독자를 행복한 긴장 속으로 유혹할 만한 매력을 품고 있는 시라면 좋은 시가 아닐까? 여기에 매끄러운 문장 배치와 마지막 울림의 탄력까지 갖춘 시라면 분명 좋은 시일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청렴의 중요성’을 ‘가장 시(詩)다운 언어로 울림과 묘사를 더해 신선하게 표현한 작품’을 찾는 일이었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30점, 참신성 30점, 완성도 20점, 활용도 20점이었다.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춰 채점했다. 주제가 적합해도 참신함, 독창성, 새로움이 없는 작품에는 감점을 주었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작품과 활용하기에는 다소 단물이 빠진 식상한 내용을 담은 작품도 감점을 주었다. 어떤 시나 특정 문구를 패러디한 흔적이 과한 작품들도 참신성이 아쉬워 감점을 주었다. 이렇게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한 결과 <쉬리의 세계>를 시 부문 대상으로 뽑았다.

.....

외로운 쉬리

구름이 달을 가려 인적이 드문 밤에도

너의 정적(靜寂)은 계속된다

자정(自淨)의 근원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동네 여울마다 흐리한 자세로

뒤척이는 물길을 버티어 낸 이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

.....

- <쉬리의 세계> 일부

대상작 <쉬리의 세계>는, 한국 특산 어종인 ‘쉬리’라는 물고기를 ‘청렴’의 보조관념으로 배치했다.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물속에서 곳곳이 자신의 생을 지키며 살아가는 쉬리. 이것을 ‘청렴 정신’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청렴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의 상징물로 엮으며 서사를 구축해 나간 점이 좋았다. 시적 대상을 포착하고 시의 주제를 정확히 짚어가며 끝까지 서사의 길을 잃지 않은 집중력과 노력이 신뢰감을 주었다. 또한, 행간 속에서 과함도 부족함도 없는 적절한 긴장감과 차분한 어조로 담대히 밀고 간 진솔도 돋보였다.

시 부문 최우수작인 <일편청심(一片靑心)>은, 화자가 누이와 함께 혹독한 가난을 견디며 텅 빈 쌀독의 힘겨움을 헤쳐 나가던 지난겨울을 회상하는 작품이다.

.....

맑고 시린 누이의 눈물로
이제 겨우 영글기 시작한
작은 가슴을 뽏드득 닦는다

한 조각 푸른 마음
쌉싸름한 눈물위에 싹을 틔워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더는 헤매이지 않으리

.....

- <일편청심(一片靑心)> 일부

오래전 가난 앞에서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졌던 누이가 뽏뽏 숨겨왔던 과거, 그 슬프고
힘겨운 고백이 거울이 되어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누이와 자신을 위해 한 조각 푸른
마음을 싹틔워 갈 것이라는 잔잔한 기원이 담긴 작품이다. <일편청심(一片靑心)>에서
는 슬픔이 정제되어 징징대지 않는다. 슬픔의 완급을 조절하며 행간을 채워간 차분함
이 돋보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목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
는 의견도 덧붙인다. 이 외에도 우수상 3편과 장려상 5편이 입선에 올랐다. 작품 모두
‘청렴’이라는 의미는 살리면서 나머지는 개성 있는 표현과 시각으로 신선하게 풀어간
숨씨들이 좋았다.

이번 시 부문에 투고된 작품들은 편차가 심했다. 시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도 있었지
만 반면에 아직 시의 형상조차 갖추지 못한 날것도 많았다. 행복하게 호명된 당선자들
에겐 넘치는 축하를, 아쉽게 선에 오르지 못한 분들에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유사이
래(有史以來)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없다. 그 익숙한 것들을 실험적이고 새로운 각도에
서 접근하는 길뿐이다.

심사평

웹툰·카드뉴스분야

경민대학교 카툰애니메이션과 교수

김지연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분야 중 웹툰·카드뉴스에 총 125 작품이 응모되어 1차와 2차에 걸쳐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정직, 공정, 정의의 내용이 담긴 청렴공모전 출품작들은 작화와 표현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내용의 충실함과 전달력 또한 뛰어난 작품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로 당락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데에서 작품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고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작품은 기업의 공정한 채용과 직장 내 괴롭힘, 차별 금지 등의 다양한 이야기와 구성을 비롯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정직, 그리고 학교생활과 직장에서의 소소한 청렴까지 '청렴'에 대한 크고 작은 생각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모 지원작인 웹툰과 카드뉴스에 잘 표현되어 있어, 이미 청렴한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상당한 수준과 높은 위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앞으로 더욱 기대가 큰 공모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렴'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정직, 공정, 정의'의 원칙은 늘 변함없는 절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한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증진하며 우리 일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정신입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 더 살기 좋은 청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01 수 기 분 야

대상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최우수상

청렴은 당연한 것

우수상

청렴 나침반

시키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유령인간

장려상

나의 열일곱과 너희들의 열일곱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청렴의 맛

우리 동네 지킴이

대 상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

이 건

나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이다. 7월의 시작,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채용공고에 오늘도 어김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청렴의 인물 다산 정약용에게 빙의라도 된 듯 막힘없이 자기소개서를 써 내려 갔다.

“저는 공직자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서 총무부 팀장으로서 정직한 회비 관리에…….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고, A 기업을 대표하는 청렴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부름이 들렸다.

“딸, 내일 중국에서 단체로 농장 체험 오기로 했어. 엄마 좀 도와줄래?”

“알겠어요. 노트북 정리하고 나갈게요!”

급하게 작성하던 글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노트북을 정리했다.

다음 날이 되었고, 고요했던 농장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관광객들은 어머니를 따라 수확 체험을 하기 위해 농장 안으로 향했고,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도와 판매할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가이드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제가 이거 팔아 주는 대신, 가격 두 배로 올려서 반반씩 나눠 가지실래요?”

그 순간 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잠깐이지만 강하게 동요하

고 말했다. 끝내 옳지 못한 행동이란 양심의 가책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 제가 여기 사장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국 부자들이라 돈 많아요. 어차피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는 나에게 시답지 않은 농담을 던지며 다시 일을 하러 농장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농장 주인의 딸이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찻잔에 사로잡혔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은 시간이 흐르자 금방 잊혔고, 나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A 기업으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섰고, 세 명의 면접관들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지원자는 청렴이 가장 중요한 직업 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대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받은 나는 얼마 전 가이드의 은밀한 제안이 떠올랐고, 그때의 경험에 대해 답변했다.

“저는 농장 체험 안내에서 가이드로부터 받은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가이드는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 물품의 가격을 두 배 부풀려 받자는 제안을 했고, 이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또한, 저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이 농장에서 좋은 추억을 쌓으면 그 추억으로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중국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과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답변이 끝난 직후 한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런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자가 가이드의 밥줄을 끊은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나는 또다시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용기 있고 정직한 행동이 마치 잘못이라도 된 듯 반박하는 면접관에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에 쓴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면접관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30년간 교직에 몸을 담으신 동네 아저씨도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라는 농담을 던지셨다. 많은 사람의 이 같은 반응에 난 멍쩍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뇌에 빠졌다. ‘이것이 과연 청렴한 세상인가? 나의 판단과 행동이 바보 같은 것인 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의 횡령이 존재하는가?’ 한참을 나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결론을 내려 버렸다. 그래야만 나의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다음 해, 작년에 왔던 가이드가 비슷한 시기에 관광객을 이끌고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또다시 은밀한 제안을 해왔다. 잠깐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나는 가이드의 제안을 승낙했다. 나는 더 이상 ‘정의로운 척하는 겁쟁이’로 남고 싶지 않았다. 가이드의 도움으로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초반에는 두둑해지는 돈주머니를 보고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상품이 줄어가는 속도만큼 나의 양심의 가책은 커져만 갔다. 나는 차마 웃으며 돌아가는 관광객의 뒷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런 나의 후회와 양심의 가책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마다 점점 커져만 갔다.

나에게 7월은 농장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취업의 계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많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 ‘직업 윤리’에 대한 질문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이를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가 청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

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고, 면접관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커져만 가던 양심의 가책과는 달리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의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농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가이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결국 우리 농장과 여행사의 관계도 끝이 나고 말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의 모습이 마치 눈앞의 꿀을 보고 달려든 개미 같다고. 꿀은 달콤하지만, 달콤함에 취하는 순간 이미 다리는 꿀의 끈적끈적함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작 당장의 8만 원을 더 벌자고 20만 원을 놓쳐버린 셈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작년의 나는 꿀을 찾은 벌이었고, 지금의 나는 꿀에 빠진 개미이다. 여태 스스로 꿀을 찾은 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꿀에 빠진 개미의 허상인 셈이다. 결국 현실은 비참한 최후만 있을 뿐이다. 또한, 나는 옥죄어 오는 꿀의 끈적임에 평생을 꿀단지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앞으로 나는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생각날 것이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청렴'을 실천하며 다리에 붙은 꿀을 씻어낼 것이다. 언젠가 '청렴'의 날개를 달고 개미가 아닌 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꿀을 찾은 벌의 끝은 찬란하며, 꿀에 빠진 개미의 끝은 비참하다.

최우수상

청렴은
당연한 것

박 소 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던 스물여섯 살 9급 공무원 아가씨는 어느 틈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셋이나 낳은 마흔 살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셋째가 생기는 바람에 내리 5년을 쉬게 되었고, 그사이 ‘오늘 저녁은 뭐 먹지?’가 하루의 가장 큰 고민인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 풀어놓고 수다를 떨던 동네 아줌마들은 내가 공무원이라 다시 사회생활을 할 것임을 알게 되면 세상 부러워했고, 나 역시 웬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든든해지곤 했다.

다행히 복지가 좋은 공무원인지라 돌아갈 자리가 있었고, 남편이 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봐준다고 지지해 준 덕에 복직 신청을 했지만, 몇 년을 아이만 키우면서 동화책만 읽던 내가 그동안 수없이 개정된 세법과 시스템에 적응할 생각을 하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두려워졌다. 심지어 좀이 쑤서서 어서 복직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내가 복직 날이 손꼽을 만큼 가까워지니 두려움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을 물릴 수는 없었고, 복직하는 그날이 왔다. 모든 것이 변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변했다. 기존에 알던 지식은 잊어버린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기억나는 지식은 개정되어 쓸모가 없었다. 전문 용어는 고사하고, 보고서에 쓸 만한 적절한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았다. ‘맘마’, ‘까까’ 같은 유아적인 단어들만 쓰던 내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쓰려니 막막해졌다.

수년 만에 복직한 회사도 내가 변한 만큼 달라져 있었다.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 문화가 생겼고, 익명게시판과 공무원노조가 생겼다. 근무평정에 대한 순위와 점수가 공개되었고, 의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아래 직원들 사이에는 할 말은 하는 문화가 생겼지만, 윗분들은 여전히 정당한 항의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연공서열을 따지셨다. 신·구가 묘하게 엉켜 있는 조직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고, 뒤로 후퇴한 내가 앞으로 뛰어간 조직에 예전처럼 적응할 수 있을지, 일할 수 있을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걱정투성이인 내 앞에 툭 떨어진 주제는 ‘청렴’이었다.

내가 다니는 시청은 청렴 동아리, 청렴 캠페인, 청렴 챌린지, 청렴 워크숍, 청렴 표어 등 떨어진 청렴도 순위를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된 청렴의 향연장이었다. 청렴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실적으로 부서 평가 점수를 매긴다고 했다. 모든 부서에서는 앞다투어 청렴 동아리를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했다. 하루는 청렴 강의를 들었다고 했고, 하루는 청렴 챌린지를 해 인증샷을 찍고, 하루는 표어를 만들고, 하루는 음주운전 교육을 했다. 그리고 그런 실적들은 문서가 되어 우리의 치적이 되었다.

새올 게시판(공무원들의 사내 게시판)에는 청렴 동아리 실적을 위해, 부서의 가점을 위해 너도나도 올린 청렴 관련 게시물들이 읽어볼 새도 없이 쌓였다. 물론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 오랜만의 복직, 빨리 적응하고 싶은 열망에 누구보다 청렴한 척했지만, 사실 나는 모순덩어리였다.

나의 업무는 체납자들을 독려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일이었다.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공매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왔다. 그들은 언제나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세금을 내지 못한다 했다. 수억의 부동산을 팔아 수천만 원의 체납액이 있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고 누가 교육한 것처럼 한결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한결같이 대하지 않았다. 이성적이고 점잖은 체납자에게 더 가혹했고, 소리 지르고 욕박지르는 체납자는 분납 기한을 여유 있게, 분납금을 적게, 체납 처분을 느슨하게 해주었다. 공정하지 못했다.

또 나는 상사의 업무 외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고, 심지어 후배들에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함께하자고 했다. 근무시간에 업무 외적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날이 있었고, 작은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것이 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풀 새도 없이 나의 하루는 지나갔고, 틈틈이 청렴 관련 설정 사진

을 찍었고, 나의 허울뿐인 청렴 실적은 A4 종이 위에 새겨졌다.

종이 위의 청렴, 모니터 안의 청렴. 그것이 진짜인가?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열 번 스무 번 읽어 주어도 언제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반응해 주었다. 그날도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수없이 읽어 준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처음으로 내게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첫째 아기 돼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짚을 얻어서 집을 짓고, 둘째 아기 돼지는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무를 얻어서 집을 지었다. 그리고 역시나 셋째 아기 돼지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을 얻어서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다. 모두 알다시피 셋째 아기 돼지의 집만 빼고 모두 늑대의 입바람에 날아갔고, 셋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만이 온전했다.

늘 평범했던 동화책이 내 머리를 맴돌던 청렴과 맞닿으면서 온통 의구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왜 아기 돼지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짚과 나무와 벽돌을 얻었을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왜 셋째 아기 돼지는 벽돌집이 가장 튼튼한 집인 것을 알면서도 형들과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과연 청렴한 행동이었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무의식중에 아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 세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의구심은 동화책마다 들었다. 『백설공주』에서 새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사냥꾼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게 했고, 사슴의 심장을 백설공주의 심장이라고 속여 왕비에게 바쳤다. 도망친 백설공주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왜 왕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사냥꾼에게 시켰고, 왜 사냥꾼은 왕비의 갑질을 당당히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왕비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보고해도 되는 걸까? 왜 백설공주는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을까.

상사의 갑질이 당연시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고 있는 동화책들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면서 우리의 문화가 청렴해지길 바라는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싶었다. 어릴 때부터 물들여진 부조리를 뜯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 것이다. 우리의 청렴의 시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허공에라도 알리고 싶었다. 나의 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그러던 와중에 청렴 수기 공모가 있다고 해서 정말 부족한 글솜씨라 부끄럽지만 몇 줄 끄적이라 그간의 수상작을 몇 편 읽어 보았다. 모두 가슴 묵직해지는 감동이 있었지만, 대개의 스토리가 비슷했다. 과거 회사 포인트를 가져다 쓰는 등의 부패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것은 부패였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에 녹아 있었다. 아주 만연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심지가 굳은 어른께서 그것이 잘못임을 알려 주셨고, 그로 인해 글쓴이의 청렴을 일깨워 주셨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여기서 나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만연한 부패 문화와 과거형의 청렴 실천.

부패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듯이 청렴이 우리의 생활이 되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동화에, 동요에, 학교에, 놀이에 무의식적으로 녹아 있어야 한다. 아침에는 잠에서 깨고 저녁에는 잠드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청렴은 이제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고, 습관이고,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스며들어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제 청렴은 진화했다. 뇌물 수수 금지, 청탁 금지,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제도의 청렴은 과거의 청렴이 되었다. 지금은 갑질 안 하기, 정당하게 거절하기, 틀린 것을 인정하는 용기, 소신 있는 업무 처리, 나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사고의 변화가 곧 청렴이 되었다.

습관처럼 고치기 힘든 것이 관념이다. 굳어진 첫인상을 뒤집기가 얼마나 힘든가. 반대로 청렴이 굳어진다면 얼마나 굳건하겠나. 청렴이 관습이 되고 관행이 되면, 그것은 또 관념이 되고 문화가 될 것이다. 나부터 어떤 체납자에게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리라고 다짐해 본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 관행이 되어 변함없는 진리가 되도록.

나는 동화책을 읽어 주면서 틈틈이 세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

“승빈아, 벽돌집이 튼튼한 줄 알았으면 동생들에게도 같이 튼튼한 집을 짓자고 알려주는 게 어떨까?”

“유빈아, 먹고 싶으면 돈 내고 먹는 거야.”

“예빈아, 하기 싫은 건 ‘나 그거 하기 싫어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룡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새어머니, 새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룡쥐, 불의를 보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묵인한 팔쥐, 신데렐라를 찾는 개인 용무에 직원을 동원한 왕자, 신원을 속이고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는 동화 속 온갖 부조리들이 혹여나 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까 동화책을 읽어 준 후 꼭 되물어 본다.

“그것은 과연 바른 행동이었을까?”

우수상

청렴 나침반

박 제 이

내가 나고 자란 시골 마을엔 바보 아저씨가 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바보래요, 바보래요.”

철없는 동네 아이들이 졸졸 쫓아다니며 놀려도 허허 사람 좋은 웃음만 짓는 아저씨. 머리는 까치집에 언제 빨랐는지 콧속한 냄새가 나는 낡은 잠바를 입고 온 동네를 쏘다닌다.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했나, 오토바이를 몰다 전봇대에 부딪혔다고 했나. 눈치가 없고, 말이 느리고, 셈도 느린 아저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동네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다.

사람들은 요령은 없지만 께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아저씨를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품삯을 챙겨 줬다. 말하자면 철수 아저씨는 마을 공동체가 다 함께 돌보는 존재였다.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 집.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날 부른다.

“딸, 철수 아저씨 말이야…….”

‘철수 아저씨?’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나는 철수 아저씨가 항상 거북했다. 께죄죄한 차림새에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말도 어눌해서 무섭고 싫었다. 멀리서 아저씨 그림자만 보어도 멀리 돌아갈 정도였다.

“철수 아저씨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몸 쓰는 일 하기도 힘들고, 너무 딱하지 뭐니. 얼마 전에 면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모양이야. 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니. 팍팍하게 사는 철수 아저씨가 못내 신경이 쓰여 사회 복지 공무원인 나에게 말을 꺼낸 것이다.

“엄마, 수급자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소득, 재산이 없는 건 기본에 부양의무자도 확인하고, 자동차도 없어야 해. 어려워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아저씨 집도 자가고 오래되긴 했지만, 자동차에 오토바이도 있잖아.”

“냅아 빠진 고물 자동차도 재산으로 본다고? 그 차 팔라고 해야겠다. 우리 딸이 철수 아저씨 설득 좀 해줘.”

어머니의 오지랖에 결국 철수 아저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면사무소에도 확인을 해보니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 탈락을 한 것이 맞았다. 고집 센 아저씨를 겨우 설득해 차를 팔았고, 다음 달 아저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뿌듯했다. 어리숙하다 못해 바보처럼 보이는 아저씨. 뚜렷한 직업도 없이 날품팔이하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 고생하며 지내는 아저씨를 도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공무원인 우리 딸 덕분에 철수 아저씨가 수급자가 되었다며 은근히 자랑하는 어머니의 한껏 올라간 어깨를 보는 것도,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아저씨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도 좋았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사는 게 팍팍한지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받지 못해 어렵게 지낸다는 고모할머니, 공사판에서 다리를 다치고 술에 절어 폐인처럼 지낸다는 아무개 아저씨,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 등이 저마다 철수 아저씨처럼 본인을 수급자로 만들어 달라고 나를 찾는 게 아닌가.

면사무소 복지계에서 상담하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친척인 고모할머니까지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서 자리를 잡았고, 몇 해 전 고모할아버지마저 돌아가

시면서 혼자 남은 터였다. 일흔이 훌쩍 넘은 할머니는 당숙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는데, 당숙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용돈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노구를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섰지만, 들이는 노동에 비해 버는 돈은 턱없이 적었고,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오는 지경이었다.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다. 불 꺼진 방에 물먹은 솜처럼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고모할머니를 그 누가 모르는 체할 수 있으랴.

“할머니, 당숙은 얼마나 자주 댁에 들르나요? 전화는 많이 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거지. 먹고살기 바빠서 가끔 통화만 해.”

“용돈은 받으세요?”

“몇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보내 줘.”

당숙이 돈을 버는 한 고모할머니는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할머니, 잘 들으세요. 수급자가 되려면 당숙이랑 연락하면 안 돼요.”

“뭐라고! 아들이랑 통화도 못 해?”

“가족 관계 단절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될 때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말고, 용돈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고모할머니는 내 말대로 당숙과 연락을 끊고 살았고, 몇 달 후 네 덕분에 수급자가 되

있다면 어머니를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철수 아저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명치가 꼭 막힌 것이 체한 것처럼 속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다.

‘고모할머니와 당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야.’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면서 친척들이 우회적으로 법을 어기도록 도와주다니. 내가 부정 수급자들을 조사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가족 관계 단절이라는 방법을 알려줘서 부정 수급자를 만들었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비난받는 꿈, 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악몽을 꾸기 일쑤였다. 고향 집에 갈 때마다 고모할머니에게 인사드리던 것도 불편한 마음에 피해 다녔다. 내 허물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느라 불이 움푹 파일 정도로 살까지 빠졌다.

올해 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몇 년 만에 당숙이 인사를 왔다. 내 선물이라며 값비싼 가방을 손에 들고.

“당숙, 웬 선물이에요?”

뜻밖의 선물을 받고 어리둥절한 나에게 당숙이 대답했다.

“내가 어려울 때, 네 덕분에 어머니 용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웠는지 몰라.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고 직원 월급이 밀릴 때는 눈앞이 정말 캄캄했지. 이젠 사업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 이걸 내 성의로 알고 받아 주렴.”

“당숙,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당숙에게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이야기했다. 가방을 받으면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선물은 거절했다. 당숙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한참을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다가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다.

다음 날 당숙에게서 걸려온 전화.

“조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 큰 빚을 졌네. 면사무소에 가서 지금까지 받은 수급비를 반납하는 건 어떨까. 수급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양심을 지켜야지.”

당숙은 정말로 설 연휴가 끝나고 면사무소에 가서 고모할머니가 받은 수급비를 반납했고, 수급자 자격도 철회했다. 가방을 환불하고 받은 돈은 내 이름으로 면사무소 복지계에 기부했다. 당숙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공직자로서 일하다 보면 유혹에 흔들릴 때가 생긴다. 법을 알고 정책을 잘 알다 보니 그 테두리 안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때마다 당숙에게 건네받은 내 이름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위의 사건은 내 공직 생활의 방향을 알려 주는 청렴 나침반이 되었다.

우수상

시키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권 창 섭

저는 소위 줄도 뺑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특출한 장기도 좋은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잘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가 지시하는 건 뭐든지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호텔리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호텔리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합니다. 업장에 배치된 첫날 선임 간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야, 넌 잘하는 게 뭐야?”

“주특기는 없지만 시키는 일은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사업 계획은 네가 작성해 봐.”

‘업무 매뉴얼 만들어 봐’, ‘나 대신 야근 좀 해’ 등의 지시부터 시작해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번 회식 때는 네가 장기자랑 좀 준비해라’, ‘내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하는데 쉬는 날 와서 좀 도와 줘라’, ‘다음 주에 출장을 가는데 우리 집 강아지 밥 좀 챙겨 줘라’ 등등...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뭐든지 열심히 하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몇 년을 정말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는 어느덧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었고, 이는 제가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는 원인이 되었으며, 동기들보다 앞서 승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뒤로하고 열정과 애사심으로 뭉친 자존감 강한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자’는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 이번에 A라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내 친구가 이 물품을 납품하니까 여기서 견적 좀 받아서 구매해줘. 100만 원 이하는 비교 견적이 필요 없으니 그냥 견적서만 받아서 바로 처리하면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지시를 받습니다.

“○대리, 이번에는 B라는 물품을 사야 하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 견적 좀 받아 봐. 한 200, 300만 원 할 거야.”

“팀장님, 100만 원이 넘으면 비교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금액이 더 높으면 다른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데요.”

“그럼 그 친구한테 가짜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 되지. 다 그렇게 하잖아. 내 돈도 아니고 회삿돈 쓰는데 몇만 원 아낀다고 누가 상 주나?”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별문제도 없었고, 한두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이런 일이 당연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냥 팀장이랑 실랑이하기도 싫고, 괜히 눈 밖에 나면 피곤하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것을 아주 잘하는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팀장이 내게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해외 출장을 권합니다.

“○대리, 해외 출장 한 번도 못 가봤지? 그래서 이번에 임원이 △△으로 출장을 가는데

내가 특별히 ○대리를 추천했어.”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출장비로는 부족하니까 먼저 임원 모시고 갔던 직원한테 방법을 물어봐서 출장비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할 거야.”

“네?”

“가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 줄 거야. 해외 출장 가는데 개인 돈을 쓸 수는 없잖아. 부정을 저지르라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관행이니 그렇게 하면 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출장 규정을 찾아보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행이라는 핑계를 몰모로 삼아 모자란 출장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팀장한테는 참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끄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시작과 동시에 그동안 쌓았던 좋은 이미지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 출장비 과다 지출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저 역시 감사 대상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실 직원의 지적에 저는 똑같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못 한다고 합니까? 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입니다.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니라 누구든 제 입장이라면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결국 저의 잘못된 회사의 징계로 이어졌고, 많은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척, 열심히 하는 척하더니 뒤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네’라고 뒷담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위로 아닌 위로도 받았습니다. ‘회사생활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해 봤자 너처럼 징계나 받지’,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문제 생기면 실무자만 다쳐’ 등등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으며 시키는 것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성사시켰고,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저 역시 배신감, 억울함, 회사에 대한 반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 나의 심금을 울리다

그날 저녁 아내와 술 한잔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제게 아내의 이야기는 삶에 반전을 준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먼저 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오랜 친구로서 위로와 공감을 주었습니다.

“여보, 지금 억울하지? 당신이 평생 함께할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나랑 우리 애들이고,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깐 힘내서 다시 열심히 살아 보자.”

그리고 그다음 이야기에 저는 제대로 한 대 맞은 듯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썩기 마련이고 누군가는 그 썩은 관행을 도려내야 하는데,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한 것 같아서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해. 당신으로 인해서 규정도 올바르게 바뀔 것이고, 회사가 보다 더 청렴해질 테니까. 비록 지금은 아프고 억울하겠지만 후에는 회사의 역사가 당신이랑 함께할 거라 생각해. 나는 당신이 평소에 늘 약자 편이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좋은 아들이자 아빠, 남편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지난 일은 다 잊자.”

“그래, 앞으로 또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누가 되었든 당당하게 말할게. 아니, 확~신고해 버릴 거야.”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실장이 저를 부르며 말합니다.

“○과장, 예전에 고가의 판촉물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혹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

“당시에 쓴 판촉물 관리대장이냐, 만약 누구한테 주었다면 인수인계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게 좀 애매해서 그런데, 해외 출장 갔을 때 외국인한테 전달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미리 입을 맞춰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 것 같은데, 숨기기 시작하면 계속 일이 커질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공개하고 다음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괜히 문제되면 신상에 좋을 것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 잘하더니 이제 많이 컸나 보네. ○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직장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실장님, 고가의 물건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건 관리 소홀이고요, 공직자로서 ‘부

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부당 지시하시는 것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제가 그렇게 겪고 우리 회사가 한 단계 성장했듯 실장님도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후배들한테 정직하고 떳떳한 선배로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실장님과는 서먹서먹해졌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참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물론, 후배에게도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래도 안 된다면 공익 제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시키는 걸 잘한다는 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에 몸담은 수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들이 요즘은 청탁금지법 등 청렴이라는 명목 아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시킨다’라는 말조차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 아래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키는 걸 잘해서 이익을 얻는 세상이 아닌, 올바르게 지시하고 정의롭게 끌고 나가는 세상, 아닐 때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이를 품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뒷받침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참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수상

유령
인간

변 지 은

학창 시절 나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존재들이 내뿜는 왕성한 에너지는 겉으로 봐서는 생기 넘치고 싱그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적이 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열기는 맹수처럼 잔혹했고, 과시적이었다. 또 여럿이 모일수록 힘의 동원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선부른 반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의 눈치는 있었다. 돈을 원하면 어머니께 문제집을 산다고 하고 받은 용돈을 갖다 바쳤고, 학교라는 무료하기 짝이 없는 일상에 시비 걸 상대가 필요하면 기꺼이 샌드백이 되어 줬다. 착하게 자라야지, 말씀하시던 어른들의 바람처럼 나는 착하고 양전하게, 일명 ‘공식 짜질이’의 말은 바 임무를 다한 것이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한 대 얻어맞으면 너도 똑같이 한 대 정도는 갈기라고. 그게 ‘공평’이라고. 뺨을 맞고, 옷이 벗겨지고, 쓰레기통 취급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렸지만, 거인들의 발길질에 대항하기엔 나는 겁 많고 물렁한 소형 불개미였다. 밤마다 칼을 든 괴물에 쫓기는 악몽을 꿔다. 새로 산 교복 카디건이 또 찢어졌으니 손대지 말아 달라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오는 탓에 꾸중이 잦아졌으니 제발 빼앗지 말아 달라고. 푸르메땡한 멍 자국처럼 내 속도 망가지고 있으니 그만 멈춰 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은 전달되지 못한 채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사춘기 소녀의 멍을 쥐어 잡고 흔들어들었다. 그렇게 나의 학창 시절이 지나갔다. 아니, ‘견뎌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불행한 기억 꼬리표’는 주홍 글씨처럼 생채기 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끈질긴 괴롭힘이었다. 덕분에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 공포증’에 시달렸다. 희망적인 사실은 대학을 갔고, 마땅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빵 코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다. 불행은, 면접만 보러 가면 학창 시절 맹수들이 불현듯 출현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답변을 준비하는 내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머릿속을 뒤흔들고, 생뿔머리로 만들었다. 그러고선 ‘광속탈락’이라는 패배자 딱지를 선사해 줬다. 면접장을 떠나는 머리채를 움켜잡고, 꼭 다문 입술에 수갑을 채워 사춘기 감옥살이 시절로 다시금 데려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이라는 게 필수 조건처럼 따랐다.

문예창작학과를 전공한 내게는 자기소개서 첨삭 부탁이 종종 들어왔다. 비평에 한해서는 섬세하고 꼼꼼한 면모가 있었던지라 그리 까다로운 일은 아니었다. 의뢰를 받고, 메일로 파일을 전달받고, 검토 후 다시 전달한다. 두세 번의 피드백이 오간다. 소정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대략 이런 코스였다. 나는 점점 분야를 넓혀갔다. 주변의 소개를 받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홍보 글을 올리고, 재능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내 존재를 알렸다. 취업준비생 자기소개서, 대학생 리포트, 대학원생 논문, 중고등학생들의 논술문까지. 그야말로 뜻밖의 창조경제였다.

그렇게 나는 첨삭 및 교정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다. 직업 만족도에 점수를 매기자면 90점 이상. 직접적인 만남 없이 타인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비문을 바로잡고 실용적이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법,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법, 은유를 글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법 등. 조언자로서 또 어느 순간에는 벗으로서 덩어리 같은 고민을 껴안고 있는 의뢰인들의 새벽을 지켜 줬다. 퇴고 과정을 겪을수록 더 좋은 글이 탄생하듯이 당신도 치열하게 성장할 거라 말해 줬다. 그러면서 내 족쇄 같은 어린 시절 상처까지도 함께 게워냈다. 내 일을 사랑했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유혹은 늘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 따뜻한 악수를 건네며 아주 달콤한 계획을 들려줬다. 전(前) 의뢰인에게 연락이 온 건 마감일에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독서논술지도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해 개인 과외 식으로 독서논술을 지도했던 학생의 어머니였다. 외고 진학을 희망한다는 소식과 함께 꺼낸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러했다.

‘외고 진학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아이가 공부 머리는 있는데 글솜씨가 없다. 추천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다. 나머지를 맡아 줄 수 있겠느냐.’

처음엔 흔쾌히 작성본을 보내면 조언을 덧붙여 드리겠다 대답했다. 노골적이면서 구체적인 요구가 돌아왔다.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가 쓰는 법을 몰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 대신 써주셨으면 좋겠다.’

두 배의 비용이 제안으로 들어왔다.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갔다. ‘손님 가려 받으면 일 끊긴다’라는 자영업계의 암묵적 징크스가 번뜩였다. 소개로 이어질 예비 고객들이 머릿속에서 번호표를 뽑고 있었다.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파동은 오랜 시간 방패처럼 쌓아 올린 ‘신념’이라는 철벽에 망치질을 했다. 세 사람만 입을 다문다면 남들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만 금이 갔다. 분필 가루 같은 모래 양심이 새어 나가기엔 적당한 크기의 틈이었다.

“잠시 생각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일단 끊긴 휴대폰이 유혹의 손바닥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솔깃한 제안이었다. 또 다른 창조경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거기서 거기’ 식의 조언하기 업무가 반복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끈질긴 피드백과 퇴고 요구에 따라와 주지 않는 상황에 지쳐 있었다. 더 솔직하게는, 수입이 불안정했고 또 적었다. 슬슬 직급을 달게 된 또래들이 경주마를 타고 활주하듯 달릴 때, 나는 시속 10km 속도로 가는 당나귀 위에 탑승해 있었다. 이미 대필업체들은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터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일이라지만 순수한 행복에 뛰어드는 일에 어떠한 고위험이 따르는지, 정답은 없고 무수한 해답만 있는 일에 가산점 없이 평가받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힘쓰는 것보다 내가 유령이 되는 게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일이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 점점 느는 도둑질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정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동기 A에게 연락을 했다. 한때 순수문학을 꿈꿨고, 문과생이라는 엽보로 바늘구멍 취업문에 튕겨 나뒹굴어진, 내 갈증과 갈증을 이해해 줄 유일한 친구였다. 실은 조언을 핑계 삼아 내 편을 통해 위안을 받으려는 요량으로 건 전화였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이참에 대필 작가로 활동 분야를 넓힐 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거라고. 속내

를 내비치자 뜻밖에 격양된 대화가 오갔다.

A- 소설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책을 내면서 뒤에서는 대필자를 고용한다면 그 건 사기 행위다.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나- 모든 사람에게 글 쓰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는 배울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다.

A- 그 관계가 저작자 권리까지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경우를 초래한다면?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창작자 권리를 훔치는 행위다. 대필 작가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대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일명 유명작가. 물론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은 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조건으로 글쓰기 능력을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실 저작권까지 이양되는 건 아니다. 실 저작자임에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 뿐. 나는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의뢰인이자 창작자들에게 줄기차게 한 이야기가 있다. 모든 창작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체는 그 권리 아래 보호 받는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작용하여 공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자식같이 여겨야 한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려는 권리 의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내가 유명이 되어 그 책임감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쓴 글도 좋은 글이지만, 진실성 있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는 건 오직 OO이뿐입니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냉담한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른가 보네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듯 보이지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는 명확한 기준도, 규정이랄 것도 없다. 그렇기에 '이 정도 유리함을 취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개개인의 도의적 책임감에 따라 양심 지정선이 그어진다. 선을 넘어버리는 것은 어찌면 한순간일지도 모른다. 유명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법을 택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순수한 행복의 범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장려상

나의 열일곱과
너희들의 열일곱

임도이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는 교직원의 촌지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던 시기였다.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었다. 지금이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인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때만 해도 '성의 표시'가 당연히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특히나 촌지 문화가 횡행하던 부모님 세대에서는 '교사 5년 하고 집을 못 사면 바보'라는 말이 있었으니 말이다.

현장 체험이 있는 날이면 반장의 부모님이 선생님의 도시락과 간식을 챙겼고, 스승의 날이면 돈을 걸어 선생님께 선물과 꽃을 드리고 파티를 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이런 '관례'에 대해 불만은 없었다. 부담은 있었다. 그러나 그 화살은 부패한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끌어안았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해서.’

‘저 녀석은 뭐 하러 반장에 나가서.’

사실 국공립 학교에 다녔던 어린 나에게는 이런 일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실제로 우리 세대로 오면서 촌지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였다. 돌이켜 보면 이것도 부당한 일이었지 싶은 것들은 있었지만, 큰돈이 오가는 문제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나 일어났던 일이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사립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곧바로 깨졌다. 고등학교 시절 부반장이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나를 교무실로 불러 이번 학부모 참관 수업에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맞벌이를 하셔서 바쁘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이 꼭 와야 한다며 강경하게 말씀하셨다. 당시 나는 내 대학 진학에 대해 상담하려고 그러시나 생각해서 별생각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머니가 하루 연차를 내고 학교에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학부모 참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내게 해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반장과 부반장 엄마들을 교장실로 불러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각자 50만 원씩 학부모회장에게 내시면 됩니다. 모인 돈은 학교 관리와 행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건 시작이었다. 우리는 10반까지 있었으니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학교는 각종 행사를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리 반장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께 물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래도 돼?”

“몇 반인지 누구 엄마인지 다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대를 하니. 엄마가 그 돈 못 내겠다고 하면 네가 피해를 볼 텐데.”

그렇다. 퇴직하지 않는 한 교사가 바뀌지도 않는 것이 사립 고등학교다. 대학교 입시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일을 크게 만드느니 그깟 50만 원은 그냥 낼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집 가정 상황이었고 우리 반 반장은 달랐다. 막내인 나와 달리 반장은 아직 어린 동생들도 있었고 문제집도 마련하기 힘들어 교무실에서 남는 문제집을 받아 오는 형편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속상해했고 나 또한 공감했다.

반장은 나와 다른 반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무산됐다. 사실 예정된 일이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아이들과 학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좋은 말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잡음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급 임원이 아닌 일반 학우들은 굳이 이 일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학교가 아닌 서로에게 화살을 돌렸다.

“50만 원도 못 내? 그냥 좀 내면 안 돼?”

“너는 호구처럼 내고 살든가.”

돈을 받는 이는 학교인데 우리는 서로를 비겁자와 가난뱅이로 편을 갈라 싸웠다.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다. 그러나 상처를 가장 많이 입은 쪽은 확연히 드러났다. 길어지는 다툼에 지친 학생들은 우리 반에 짜증을 내보였다.

비단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담임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차마 교육자로서 돈을 내라고 다그치지도 못했고, 위로부터는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선생 반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쓴소리를 들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느꼈다.

‘그냥 좀 내지.’

나는 학창 시절 내내 교대를 지망했으나 이 사건 이후로 진로가 바뀌었다. 교사가 되어 이런 문제에 또다시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미래의 내 모습을 투영했다.

‘내가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생활기록부 걱정애 아무것도 못 하고 말로만 반장을 응원한다는 나와 임용애 문제가 될까 입을 다무는 선생님이 뭐가 다를까?’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이던 아이들과 촌지 문화에서 자랐던 학부모들, 기간제 교사였던 담임, 관행대로 하겠다는 학교. 사실상 일대 다수의 싸움이었다. 나 또한 반장의 편을 들면서도 이미 어머니가 돈을 내버린 상태라 돈을 내지 않은 학생은 반장 한 명뿐이었다. 결국, 딸아이의 학교생활을 걱정했던 반장의 어머니가 돈을 마련해 오면서 이 일은 끝이 났다.

학교의 부정부패는 우리 모두에게 생채기만 남겼다. 담임 선생님은 권위를 잃었고 반

장은 자존심을 잃었으며 친구들은 우정을 잃었다. 반 분위기는 1년 내내 싸늘했다.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돈을 내서 학급 임원들이 특별히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얻었다거나, 학교생활이 편해졌다가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학교는 그저 늘 받던 것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졸업한 지 2년 후 그 일이 거의 잊힐 무렵,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후배가 모교의 소식을 알려왔다.

“선배, 이번 1학년들 장난 아니예요. 교육청에도 신고하고 국민 신문고에도 알렸대요.”

정확하게는 학교 교칙 중에 학생 인권에 반하는 조항이 있어 신고했는데 감사가 나오자 누군가 돈을 걷는 관행까지 제기하며 일이 커졌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다. 일단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관행은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조용히 덮었다고도 전해 주었다.

“저는 반장도 아니었어서 몰랐어요. 선배 때도 돈 걷었어요?”

여기에 내가 무슨 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의 욕을 시원하게 했던 듯도 싶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듯도 싶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난다. 얼떨떨했다는 것. 그게 정말 사라졌다고? 그리고 다음 해 9월 즈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나는 믿기로 했다. 이제 그 관행은 학생들을 괴롭힐 수 없겠구나, 하고.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학교’의 입장이 되는 순간들이 생겼다. 관행이고,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끝날 악습. 나에게 생기는 이득은 쓸쓸한 정도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들. 그냥 내가 한 번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도 가끔 유혹이 밀려올 때면 그 시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나를 억지로 들춰낸다. 그 시절 치졸한 괴롭힘이 동반된 부정부패는 예민하고 어렸던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가 버렸고 남은 것은 정의할 수 없는 상실감이다. 그것이 어른들에 대한 신뢰였을지, 내 오랜 꿈이던 교직 생활에 대한 환상이었을지. 혹은 나보다 몇 살은 어린 1학년들이 가져간, 그 시절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권리일지.

아직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안의 열일곱 살은 이런 부분에 있어 매우 단호하다. 유연하게 관행을 받아들이 줄 모르고, 압박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고집불통. 그러면 나는 고민하다가도 기꺼이 이 열일곱 살의 손을 들어 준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열일곱 살은 이제야 웃는다. 그 시절 우리의 눈을 피하던 어른들이 아닌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고 간다. 어떤 곳에서는 청렴함이 필수적으로, 강박적으로라도 요구되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영혼을 키우는 곳이다. 그렇기에 나는 새장 안에 갇혀 있던 열일곱 살의 나에게 보여 준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당장 나 때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더라도 참지 않는 어린 학생과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고 힘을 보태 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청렴함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고 순간의 이득에 눈이 멀지 않는 어른들이 있어 오늘도 너의 열일곱과 나의 열일곱은 다르다.

장려상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고 창 균

“아니, 왜 7,000원을 주는 거지?”

국민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짝꿍의 금색 샤프펜슬이 부러웠던 나는 매번 하굣길에 문방구점에 들러 주인 할머니께 이미 수차례 물어본 금색 샤프펜슬의 가격을 몇 번이나 되물곤 했다. 몇 번이나 되물어도 주인 할머니는 싫은 내색 없이 7,000원이라고 말해 주며 도리어 옆에 있던 알사탕을 하나씩 쥐여 주셨다.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던 나에게 7,000원이란 가격은 너무 부담스러워, 금색 샤프펜슬 옆에 있던 검은색 투박한 샤프펜슬에 한동안 만족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다 설날 연휴 때 할머니가 주신 만 원을 들고 기어코 금색 샤프펜슬을 사기 위해 문방구점으로 향했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만 원과 금색 샤프펜슬 상자를 드디어 맞바꾸었다.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아 나왔는데, 무심코 손바닥을 펼쳐보니 3,000원이어야 하는 거스름돈이 7,000원이었다. 이미 문방구점 문을 닫고 나왔고 이대로 집으로 향하면 주인 할머니는 모르실 상황이었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떠올리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지만, 한 달 용돈 5,000원이었던 나에게 그 상황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결국 나는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는 주인 할머니가 쥐여 주는 알사탕을 맛보지 못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후에 다시 그 문방구점 앞을 지나갔지만, 주인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쪽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꽤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고, 이 무거움이 바로 양심과 청렴의 무게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거스름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한순간에 양심을 저버렸던 여덟 살의 ‘나’와 달리 나의 부모님은 늘 정직을 철칙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오셨다. 특히 아버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으셨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재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셔서, 자기네 물건을 써 달라고 부탁하려는 삼촌들이 집으로 자주 찾아왔던 기억이 난다. 삼촌들은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그것들을 절대 집으로 들인 적이 없었다. 삼촌들의 손에 들린 물건이 ‘○○제과 종합선물세트’였을 때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 조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

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삼촌들의 손을 이끌고 나가면서 “마, 이런 거 고마 갖고 온나. 갖고 와도 나는 못 받는데이. 집에 느그 아나 갖다 주라. 소주나 한 고뿌 하고 가라”라고 하였고, 그런 날마다 아버지는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술주정을 부리셨다.

“마, 내가 가진 건 읍어도 자존심도 읍나. 읍이 살아도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기라. 니도 똑똑히 들으래이.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알아듣겠나?”

그때 아버지의 술주정이 싫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아버지의 웃음이 바로 정직과 정의의 대가(代價)였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삼촌들의 손에 들려 있던 물건들을 되돌려보내는 아버지를 만류하지 않은 어머니 덕분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없이 사는 살림이었지만 쪼개고 또 쪼개어 정말 알뜰히도 살림을 꾸리셨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스승의 날이 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 선물로 양말 세 켤레가 가지런히 포장된 선물 박스를 내 손에 들려 보내셨다. 그리고 선물 박스 안에는 늘 흰색 봉투도 함께 있었는데, 그 속엔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한글을 완전히 깨우친 후에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본 편지에는 아들을 많이 꾸짖어 달라는, 버릇이 없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우리 아들을 잘 봐 달라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삶으로 보여 주셨던 가치대로 나는 정직하고 우직하게 노력을 했고, 다행히 부모님의 바람대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신명 나게 학교생활을 했으며, 아이들 앞에 늘 당당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처음으로 담임 교사를 맡았을 때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제2의 부모가 된 것처럼 생활했는데,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다.

며칠 후 그 아이의 아버지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끝내고 나서 보니 그 아버지가 앉

았던 자리 옆에 무거운 나무 상자와 흰 봉투가 담긴 종이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 나무 상자가 ‘○○년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위스키 상자라는 것과 그 흰 봉투가 나의 어머니께서 양말 박스 안에 넣어 보내시던 손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초임 교사로서 처음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릴 적 문방구점에서 있었던 달콤한 유혹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주인 할머니가 주시던 알사탕을 또다시 배반할 수는 없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주창장으로 달려 나갔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전화상으로만 지루한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선물을 주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뜻을 쉽게 굽히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실랑이 끝에 다음 날 그 아버지께서 다시 학교로 오셨고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내 뜻을 받아들이셨다.

다시는 국민학교 앞 문방구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예전과 달리,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었다. 한편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놓고 갔을 때는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애당초 빈손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는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

아이들을 통해 담임 교사의 의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나니, 대부분의 부모님이 나의 방침에 따라 주셨다. 대신에 나는 신학기만 되면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수없이 외쳐야만 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물론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과 상처가 있기도 했다. 모든

교사가 그동안 부정청탁을 받아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듯한 느낌이 들어 약간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아이들이 주는 캔커피 하나, 사탕 하나까지도 자기 검열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의 어머니께서 내 손에 들려 보내시던 양말 세 켤레마저도 부정청탁의 허울을 덮어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론은 어머니께서 양말 세 켤레에 실어 보낸 마음은 순수한 의미였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 통념상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상대방에게는 그 성의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캔커피 정도의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추후 내적 갈등의 상황에 처한다면 상대방은 그 캔커피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교육 현장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 이제 더 이상 학기 초마다 담임 교사가 “마음은 한 아름, 양손은 가볍게!”를 외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부모들은 따뜻한 마음만 갖고 학교에 찾아오신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캔커피나 꽃 한 송이가 없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몇 년이 흐르더라도 서랍 속 상자에 고이 보관할 정도로, 글로 전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향기로 남는 법이다. 꽃 한 송이에 담긴 향기는 꽃이 시들면 그만이지만, 글로 전해진 향기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단,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화려한 장식이 붙은 편지였다면, 4년 전부터는 흰 바탕의 복사 용지에 더 깨끗하게 마음을 채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꽤 오랜만에 서랍을 열고 아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정직한 게 오래가는 거데이. 정직한 게 사람을 남기는 기라.”

장려상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김 선 규

과거에 나는 직원 여섯 명을 거느린 조그마한 급식 식자재 업체를 운영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해오며 양심을 지키고 부정(不正)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소신을 지켰다. 물론 온갖 검은 유혹이 판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단순히 의지와 소신만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과 맞닥뜨릴 때도 많았다.

식자재 공급 계약을 앞두고 학교 교장이나 교감, 기업의 실무자가 노골적으로 뒷돈과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은 대부분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세부 조율을 모두 마치고 계약서에 사인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때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뒷돈을 주고 편법을 써서 계약을 따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곤 했지만, ‘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품질 좋은 식자재로 승부하면 알아봐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검은 거래를 거절했다. 그러면 해당 공급 건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리곤 했다.

물론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달아 우리 회사에 퇴짜를 놓았다. 공급 단가가 비싸다거나 식자재 품질이 형편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계약을 따낸 업체들이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공급 단가를 고의로 높여 부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교나 기업의 구성원들이 입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고 신물이 넘어오곤 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역시 뒷돈을 주고서라도 공급 계약을 따냈어야 하는 건가. 나에게는 부양할 가족과 딸린 회사 식구들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한 번이 힘들지, 일단 선을 한 번 넘고 나면 결코 예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나마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들이 더 많아 간신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점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내가 평생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마음을 다잡곤 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경쟁 업체가

난립하고 경기마저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참담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된 만큼 미안한 마음을 담아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30%씩 더 챙겨 주었다. 여기에 자식 둘이 연달아 시집, 장가를 가는 통에 전세자금과 혼수를 맞춰 주고 나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취업은 꼭 필요했다. 평소 실용주의자를 자처 하며 살아온 나이기에 20년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지내 왔어도 재취업에 딱히 거부 감은 없었다. 나는 뛰어난 손재주를 살려 늦게나마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늦은 나 이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보람은 컸다.

그런데 검은 유혹은 이곳에도 존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작은 금전적 이익 을 놓고 편법과 부정(不正)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이다.

하루는 관리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난방이 되지 않는다며 점검을 요청하는 입주 민의 전화였다. 우리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시스템이었기에 난방 관련 점검 기계들을 이것저것 챙겨 들고 선임 기사와 함께 입주민의 집을 방문했다.

선임 기사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선임 기사와 함께 난방 관련 장치들을 점검했더니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 나 새로 교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임 기사는 입주민에게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네요. 제 품을 구입해서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품 구입비 3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기전실로 돌아온 나는 선임 기사에게 새 제품은 어디서 사와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선임 기사는 “새 제품은 사지 않아도 돼요. 다른 가정에서 고장 나 거둬들인 중 고품을 미리 고쳐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는 “깨끗이 닦아서 빈 상자에 넣어 가면 새 제품이랑 똑같아서 아무도 몰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전실 내부에 중고 제품을 쌓아두는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서 미리 수리해놓은 중고 난방 조절 장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누가 봐도 감쪽같 이 새 제품 같았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나는 선임 기사를 향해 말했다.

“좀 전에 입주민에게는 제품 구입비가 3만 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새 제품을 사 서 교체해 드려야지요.”

그러자 선임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입주민들 입장에선 제 대로 작동만 하면 되는 거지, 중고로 바꿔 주나 새것을 달아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요? 내가 앞으로 김 기사한테도 절반씩은 떼어 줄 테니, 걱정 말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리저리 건수가 많아서 은근히 수입이 짹짹하거든.”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한 달이면 이런저런 건수들로 적어도 20만 원에서 최 대 30, 40만 원까지는 생기는 눈치였다. 당시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욕심나는 돈이었 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입주민을 기만하는 범법 행위였다. 마음을 다 잡은 나는 선임 기사에게 힘주어 말했다.

“아무리 소액이지만 그래도 이걸 입주민을 속이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입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월급을 받는 처지에 그들을 기만하는 일은 차마 못 하겠습니까. 적어도 저 랑 같은 조가 되었을 때는 이리저리 마십시오. 눈감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선임 기사는 나를 노려보더니 쏘아붙였다.

“아이고, 당신처럼 딱 막힌 사람이랑은 나도 일 못 하겠네. 나 혼자 올라가서 교체하고 을 테니까 김 기사는 빠져요!”

선임 기사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기전실을 빠져나갔고, 얼마 후 혼자 일 처리를 하

고 돌아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선임 기사의 지시로 관리사무소 내에서 매번 궂은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비교적 간단한 일이나 돈이 되는 일은 선임 기사가 또 다른 기사와조를 이뤄서 나갔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이 드는 일은 나만 혼자 출동을 하게 했다. 선임 기사는 2인 1조 근무라는 규정마저 어긴 채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나섰다.

관리소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무슨 일인지 선임 기사를 감싸고돌며 나를 배척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졸지에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취급을 받게 되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합심해 나를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지냈지만, 양심을 팔지 않은 청렴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물품 구입이나 아파트 내외부 공사와 관련해 외부 업체에서 뒤통을 받은 일이 부녀회 측의 신고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직적으로 벌였던 부정들이 대거 밝혀지면서 관리소장과 몇몇 직원이 옷을 벗게 되었다.

아파트가 발각 뒤집히자, 부녀회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된 불만 사항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선임 기사의 부정 건도 함께 밝혀지게 되었다.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 나 3만 원을 주고 교체했는데 한 달 만에 또 고장이 나 다시 3만 원을 주고 수리를 받은 입주민이 클레임을 걸었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부녀회 측에서 입주민을 방문해 난방 조절 장치를 뜯어보았더니, 몇 개월 전에 바꾼 난방 조절 장치의 제조 날짜가 5년 전으로 찍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선임 기사가 새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고쳐 쓴 후 제품값을 부당하게 받은 일이 발각된 것이다.

그 후 부녀회 측에서는 최근 2년 사이에 관리사무소 기사들이 진행한 모든 작업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나를 제외한 다른 기사들이 모두 부정 행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자는 소신을 지킨 덕분에 엄청난 후폭풍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선임 기사의 일을 보면서 어쩐지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다.

정직과 청렴의 꽃이 지고 나면 한편에선 반드시 부정부패와 거짓이 고개를 든다. 반칙으로 차지한 이득은 결국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들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만다.

검은 유혹의 가치는 청렴함의 가치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당장의 이득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나 하나의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나의 조그만 의지와 행동 하나가 청렴의 꽃이 만개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장려상

청렴의 맛

김인혜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은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의례적으로 ‘촌지’를 보내는 시절이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귀한 자식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작은 정성’을 보내는 것이다. 여느 영화처럼 선생님이 대놓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이 ‘작은 정성’을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을 교탁 위에 진열해 놓고 누구 집에서 어떤 선물을 보내왔는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엄마는 여동생과 나를 동네 속옷 가게에 데리고 갔다.

“느그 선생님은 키가 엄마보다 더 크더냐?”

“아니 크진 않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엄마보다 말랐어, 아니면 살집이 더 있는 편이여?”

“에이, 우리 선생님이 더 날씬하지!”

엄마는 항상 본인 기준으로 선생님의 키가 자기보다 큰지, 작은지, 몸매는 더 말랐는지, 아니면 살집이 더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러곤 우리 대답으로 사이즈를 가늠해 맞을 법한 내복 두 벌을 사서 포장해 달라고 했다. 네모지고 가벼운 그 선물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교탁 위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 박힌 나비 집게 핀, 예쁜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 팔찌, 그리고 세련된 백화점 봉투 따위가 올려져 있었다. 그럼 나는 거의 맨 나중에 나가서 교탁 끄트머리에 내복과 함께 손편지를 끼워 놓고 들어오곤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 나 반장 선거 나가 볼까?”

“반장?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 해봐.”

“근데 반장 되면 반에 햄버거 돌려야 하는데.”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반장을 하는데 햄버거를 왜 돌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반장이 되면 원래 다들 하는 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장 선거 후보자들의 유세는 물질적 공약이 대부분이었고 그에 따라 반장이 정해지곤 했다. 선거 공약으로 햄버거를 걸었다면 그 선거는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반장 엄마들은 학교 행사 때마다 보내야 하는 게 많았다.

“반장 그거 나중에 혀라. 공부만 잘하든 되제...”

엄마는 약간 풀이 죽은 말투로 나를 다독였다. 나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엄마의 대답을 알면서도 물어본 것이었다. 그 뒤로 내가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해 스승의 날에도 어김없이 내 손에는 내복 한 벌이 들려 있었다.

장녀인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우리 집에 새로운 변화였다. 새로이 교복을 맞추고 시장에서 교칙에 맞는 책가방과 단화도 구입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다. 하나씩 준비물이 갖춰질 때마다 장사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엄마의 복대는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사건은 입학식 후, 반 배정을 마친 이튿날 생겼다. 담임 선생님이 반장 선거를 제안하며 지금까지 반장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손을 들고라고 했다. 그리 많지 않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그중에는 나도 포함돼 있었다. 선생님은 이번 학기 반장을 이 중에서 뽑자고 제안했고 열띤 끝에 앞으로 나가 반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발표했다. 반장 선거에 나가면 어떤 말을 할지 수없이 생각해 봤던 터라 막힘없이 말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그 덕분에 반장으로 당선됐다. 학우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 건 둘째 치고 우리 반만 간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다.

그날 저녁 집에서 엄마에겐 별일 아닌 듯 “나 반장 됐어.”라고 말하곤 “그냥 시켜서 하게 됐어. 별거 아냐.”라고 덧붙였다. 이 말의 뜻은 엄마가 괜히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선되면 뭘 사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는데 뽑혔다고 한 번 더 강조했고 엄마는 내 말을 듣곤 그냥 “알았다.”라고만 했다. 나는 이 말로 엄마가 내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체육대회가 있었다. 앞장서 목이 쉬어라 응원가도 부르며 일 년에 몇 번 없는 수업 없는 날을 만끽하고 다 같이 교실에 모여 종례를 하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 나갔다.

“얼마 전 몇몇 학부모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고생한 학급 선생님들께 드리는 거라고 하셨지만 1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회의한 결과 봉투는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학부모가 보내온 ‘작은 정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선생님도 처음이었지만, 이것 받을 수 없어 돌려주겠다고 한 선생님도 처음이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각자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교 임직원들은 학부모에게 돈이나 선물은 일절 받지 않고,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겠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약간의 웅성거림과 함께 종례를 마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곧장 얘기했다. 이상하리만큼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항상 차고 다니는 복대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뽀퐁은 엄마 글씨체로 ‘김인혜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돌아왔시야. 얼마 넣지도 않았는디...”

나는 두 눈이 커지고 어안이 빙빙해졌다. 아까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학부모가 우리 엄마였다니. 지금까지 내가 겪은 엄마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학급 반장인 터라 학생회 학부모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모임에 나가 본 적은 없었고, 거기서 체육대회 날 선생님들 회식비 명목으로 각출해 전달하자는 말이 나와 엄마는 10만 원을 보탤다고 했다. 그 당시 한 달 치 학원비가 8만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엄마에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래도 명색이 네가 반장인디 엄마가 뭐라도 해야 안 하나 했제.”

엄마는 내가 반장인 것이 한껏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일인가 싶으면서 한편으로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다음에’라고 말하던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엄마에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교탁 위에 수줍게 내복을 내밀던 그때의 나와는 다르게 한껏 당당한 태도였다. 선생님이 둘러보낸 하얀 봉투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말하는 선생님의 야무진 눈빛이 나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날 엄마는 저녁상을 차리는 대신 피자를 주문했다. 우리가 사달라고 졸라도 잘 사주지 않던 피자였다.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배달되어 온 따끈한 피자를 맛있게 먹었다. 아빠도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지만, 엄마와 나는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다. 그날 먹은 피자는 유난히도 따뜻하고 달콤했다.

내가 기억하는 ‘청렴의 맛’은 ‘따뜻한 맛’이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행동이거나 혹은 나 하나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렴한 행동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관행이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혹은 관심이 없어서 묵시하는 우리 일상의 작은 부패들은 누군가에겐 좌절과 상처가 된다. 단언컨대 사소한 청렴, 나 혼자만의 청렴은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날 선생님의 총명한 눈빛과 따뜻한 피자 맛을 떠올려본다. 훗날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맛’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장려상

우리 동네
지킴이

이 윤 재

오늘도 나는 동사무소에 도착한 후 노란색의 덧옷을 입는다. 덧옷의 등에 쓰인 ‘행복한 서구’와 ‘우리 동네 지킴이’라는 글자가 창피하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아 등이 근질거리고 따갑다. 그래도 나는 좀 덥고 어렵더라도 피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내가 이 옷을 입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히 기회를 얻었기에 소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거리 청소를 시키고 일당을 준다니 같이 신청해 보자고.”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신 씨가 내 손을 잡아끌었다. 사실 나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에 더 이상 나라에서 주는 혜택에 기대기가 썩스럽다. 그러나 신 씨의 생각은 내 생각과 많이 달랐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리면서도 언제나 정부에 불만이 많다.

“하여간 정부 놈들이란,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돈 좀 듬뿍뽐 줘든지...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주면서 생색을 내는 건 최고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 씨처럼 타율에 젖어 사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일을 해 생활을 꾸려갈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정부에 얹혀살려는 습성에 젖어 있다. 신 씨의 손에 끌려 동사무소에 도착한 나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하루 세 시간씩 동네와 근린공원인 남산공원을 청소하는 일인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제비뽑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최저임금의 시급을 주고 동네도 깨끗하게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시책이었다. 이런 정부 시책에 신 씨도 나도 뽐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9시부터 12시까지 세 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동사무소 앞에 모여 출석 체크를 한 다음 뿔뿔이 흩어져 동네 청소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덧입은 윗옷에 쓰인 ‘우리 동네 지킴이’ 혹은 ‘남선공원 지킴이’라는 글씨가 마음에 걸려 얼굴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신 씨를 비롯한 남들은 이깟 것이 무슨 창피냐는 듯 휴지를 주우면서도 연신 입은 바쁘게 놀렸다. 때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수다를 떨며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다.

“자식들, 담배꽁초를 어지간히도 버렸네.”

어떤 사람들은 집게로 휴지와 담배꽁초를 주워 비닐봉지에 담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 말에 나는 반박의 한마디를 하려다가 이내 목구멍으로 삼키고 말았다.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물론 거리에 휴지를 버린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무질서가 있기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던가? 만약 거리가 깨끗했다면 누가 우리를 고용해 일을 시키겠는가? 그러니 불만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이, 이 씨. 좀 쉬면서 천천히 합시다.”

일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먹자골목의 술집 앞 의자에 앉아 쉬며 한판의 수다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왠지 눈에 거슬렸다. ‘서구청’이라고 인쇄된 노란 옷을 입은 네댓 명이 청소를 하다 말고 의자에 앉아 잔소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주민들의 눈이 무서웠다.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나는 시민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한마디로 부정이고 부패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

료들처럼 자리에 앉지 않고 열심히 주변을 청소했다. 다른 사람들은 집게를 이용해 쓰레기를 주웠지만 나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쓰레기를 주웠다. 집게를 이용하면 담배꽁초 같은 작은 쓰레기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를 보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다.

“혼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내가 못마땅한 듯 수군거렸다.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돈을 타 먹으려면 돈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한 시간에 돈은 8,590원씩 타 먹으면서 일은 2,000원어치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부정이고 부패인 것이다. 받는 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책임자가 아닌데 그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지나니 여름이 다가왔다. 이젠 제법 더위가 몰려왔다. 아침 9시밖에 안 되었건만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먹자골목과 남선공원 입구에 청소가 미흡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경 좀 써서 청소해 주세요.”

조희 시 동사무소 담당자의 지적을 들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청소해야 할 동료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공원 입구의 그늘진 벤치에 앉아 노닥거리고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불과 몇 분 전에 청소 좀 깨끗이 해달라고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그대로 흘려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나는 묵묵히 혼자서 청소를 했다. 혼자서 청소를 끝내고 나도 잠깐 숨을 고르려고 그늘에 들었다.

“이 씨, 그렇게 열심히 청소한다고 누가 돈을 더 얹어 주기라도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한마디씩 말 화살을 날렸다. 그래도 나는 말 상대하기 싫어 대꾸하

지 않았다.

“이 사람아, 비력질 와서 땀 흘리면 삼대가 빌어먹는다잖아.”

누군가의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왜 비력질이야? 엄연히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돈 받고 일하면 열심히 그 값을 해야지.”

내가 버럭 화를 냈다.

“그깟 한 시간에 최저임금인 8,000원을 주는 것도 돈이야?”

시원한 그늘에 앉아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언성을 높였다. 나는 그런 행동도 싫어 그 자리를 피해 골목에 청소했다. 그들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다가는 지나가는 주민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아서였다. 나는 골목의 담배꽂초를 줍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우리 팀이 하는 행동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고 우리는 하루 세 시간을 일한다. 한 달을 계산하면 5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 팀 사람들은 그까짓 것이라 하며 일을 하는 데 소극적이다.

우리는 지나온 수십 년 세월을 청렴과 결백을 입에 달고 살아왔다. 그 결과 이젠 살만하게 되었고 복지 국가의 목전에 다다랐다.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물론 회사원에서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부정과 부패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떼먹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청렴과 결백의 전부가 아니다. 민원인에게 트집을 잡아 항응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청렴하고 결백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처럼 돈을 받고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이고 부정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높은 자리에 앉아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남의 돈으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

을 부정과 부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는 높은 자리에서, 큰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적은 돈에 연루되어도,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부정과 부패인 것이다. 지금 그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이 일을 쉬엄쉬엄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리 야박하게 따지느냐’

누구는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을 가둔 넓은 저수지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청렴이요 결백인 것이다.

“이운재 어르신 한 분만 제외하고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의 담당자는 나만 빼고 전원을 교체했다. 들리는 말로는 담당자가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훑쳐봤다고도 하고, 또는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며 혜택을 주기 위해 교체했다고도 했다. 그런가 하면 담당자가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여럿을 감시했다고도 했다. 그런 소문이 돌아 어떤 사람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동료들을 향해 나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도 않았다. 지나간 일이지만 잘 생각해 보니 주민들의 눈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일을 열심히 하자고 했잖아요.”

동료 중 누군가가 후회의 한마디를 했으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이후 나는 새로 뽑힌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게 되었으나 그들 역시 일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청소하며 이런 것이 청렴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02 시 분 야

대상

쉬리의 세계

최우수상

일편청심

우수상

아버지의 낚은 지갑

차단기

발자국

장려상

청백리 문충공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의 자리

너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대상

쉬리의 세계

이 동 택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너는 하늘빛을 머금은 호수 저편에서

도도한 생을 유평하는지도 모르지

좀처럼 너를 볼 수 없었던 까닭은

너를 보는 이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

먼저 돌아섰기 때문이거나

애써 너를 보려고 하지 않는 탓이다

외로운 쉬리

구름이 달을 가려 인적이 드문 밤에도

너의 정적(靜寂)은 계속된다

자정(自淨)의 근원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동네 여울마다 흐리한 자세로

뒤척이는 물길을 버티어 낸 이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까

쉬리의 세계는

구부러지지 않아 곧게 편 하늘빛 무늬가 엮어낸 추상이다

지천으로 널린 자신의 알들이

끈기있게 강바닥에 달라붙어

지나가는 물들의 옷을

파아란 색으로 물들일 때마다

비로소 너는 웃는다

참으로 너를 만나는 순간이다

최우수상

일편청심 (一片靑心)

황미희

그해 겨울
누이와 몸을 눌린 골방은
서릿발처럼 차가웠다

가난으로 가득 채운 쌀독을
건져내고 건져내도
바가지에 가라앉는 것은
질은 슬픔 몇 톨

흙 없는 마음보다
타인의 주머니 속 황금을
생의 고귀함이라 믿은
그런 날이 있었더라

맑고 시린 누이의 눈물로
이제 겨우 영글기 시작한
작은 가슴을 뾰드득 닦는다

한 조각 푸른 마음
쌉싸름한 눈물위에 싹을 틔워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더는 헤매이지 않으리

그리하여 다시금
고난이 문을 두드려도
뿌리내린 푸른 등대 하나
늘 가슴 속 별빛처럼 반짝이리라

우수상

아버지의 낡은 지갑

김 정 옥

엄마의 옷장 깊숙이 간직한 아버지의 흔적

낡은 지갑 속에는 집주소와 전화번호

단출한 살림처럼 박힌 명함 한 장만

수십 년 공직생활의 지위와 경륜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손때만이 나뭇치럼 반들반들합니다

여름방학에 불쑥 관사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김치보시기 없이

맨 국수를 간장으로만 간해서 점심을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관차를 직원들에게 내주고 툄툄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아버지가

찬 없이 허기만 달래는 모습이 가슴에 찰을 졌습니다

아버지는 값싼 지갑을 반자 싱글벙글하며

신분증과 명함을 꽂아 최고의 보배인 듯 자꾸 어루만졌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신문지 한 장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폐지 줍는 어르신께 드리고

해진 바지를 기워 입고 해외 출장을 가던 아버지

아버지와 둘이 자취할 때

시장 난전 할머니의 시든 채소를 먼저 팔아주라던 말씀은

가파른 언덕길을 마주할 때

삶의 안내서가 되어 줍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버지 냄새를 안겨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쓰셨던 낡은 지갑이

우수상

차단기

박민호

밤사이 천둥번개가 왔다갔다.

거실의 전등이 켜지지 않는다.

두꺼비집을 열어보니

차단기가 굳히 자고 있다.

무료로 전기를 준다는 천둥번개.

그 유혹을 단칼에 NO로 대답한 기특한 녀석

그 녀석은 그걸 받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단 것을 누구에게 들은 걸까.

오늘, 차단기 덕분에 우리 집엔 다시 밝은 빛이 든다.

우수상

발자국

방수완

1월, 함박눈 사이에 태어났다.

할머니는 내게 눈처럼 희고 곱게 살라하셨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날 태어나서는

내가 걸어온 눈길은 온통 진창길이다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믿고

비껴들어 오는 검은 손을 잡을 때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믿고

속삭이는 검은 말들에 수궁할 때에도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믿고

검디검은 순간들에 안주할 때조차

어깨에 내리는 하얀 눈꽃송이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세상은 눈 덮인 하얀 세상이라

고개를 주억거리며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였다.

눈을 즈려뺐은 무수한 발자국이 나였다

오늘도 걸어가는 청렴의 눈발

걷는 걸음마다 짙은 흔적을 남기며

나만의 지도를 그려 본다

눈처럼 살고자 한 약속

너와 나의 청렴의 지도를 그려가며

발자국 걸음마다 향기를 남기자

장려상

청백리 문충공 (文忠公)

김 완 수

위로는 나라님뿐인 만인지상 영의정
벼슬이 태산인데
재물은 티끌같이 여겼다
정승 자리 익숙했을 문충공 이원익
벼슬길 스스로 내려온 뒤
백성들 뜻 하늘같이 받들었다
공(公)이 귀하게 여긴 것은
울고 웃는 여염집 소리
백성들 삶 한평생을 우려했다
됨됨이는 넘쳐흐르고
몸가짐은 낮은 데 향했으니
물이 된 마음에 무슨 시름 있었을까
공의 삶은 태산보다 높고 컸다

곳간 대신 오두막 짓고
바람 같은 청빈만 들인 공
새끼 꼬며 가마니 짜며
하루하루 거미처럼 산 삶이라
바랄 것도 아쉬울 것도 없었겠지
오로지 욕심 있었다면
오래오래 어우러지고 싶었을 터
내 죽은 날 새기지 말라 했으나
어느 누가 비운 삶 기리지 않을까
후손들은 공의 삶 본보기로 삼겠네

장려상

부끄럽지 않게

김형섭

산촌서 나고 자란 아버지는
아들이 나랏 녹을 먹게 됐다며
옴폭 패인 주름살 위로
싱긋 한번 웃어 보이기곤
다시 눈물을 대러 나셨다

고향 떠나는 전날 밤
땡볕에 마당 수북한 깨를 터니라
깨보다 더 바짝 말라버린 손마디로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쓰담으며 하신 말씀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오늘도 난
내 마음 속 비추어내
가장 먼저 물어야만 한다

어떤 길이 바른 걸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향 떠난 그날 밤처럼
아버지와 날 똑 닮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담는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문득 그리운 아버지가
창에 달빛을 비춰왔다

장려상

아버지의 자리

안상태

술에 취해
세상을 허우적허우적 건너면
저기
섬처럼 집이 있다.
오늘도 이 풍진세상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건
저 반짝이는, 집의 광채들이다.

방문을 여니 아이들이 자고 있다
두 뺨 틈으로 비집고 눕는다
여기가 내 자리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깨끗해야 한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떳떳해야 한다.
- 박 사무관이 눈 좀 감아 주면 되는데, 안 되겠나 -
- 그럴 순 없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
그길로 술집에서 뛰쳐나와 달려온 나의 자리.

어린 시절 아버진,
월급날이면 술 한잔 걸치시고
과자와 과일이 든 봉투를 내 손에 안겨주셨다
그리고 이내 어머니의 잔소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 이거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딴 선생들은 다 촌지 받고 산다는데
처자식은 어찌 되든 혼자만 성인군자 되려고 그래요 -

사기꾼도 모리배도 부패한 관리들에게도 다 자식이 있다.

토끼같이 귀여운 자식들이 있다.

그 더럽고 부끄러운 손으로 벌어먹이는 자식들이……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자리는 더 깨끗해야 한다, 더 떳떳해야 한다.

한 녀석은 배꼽을 내놓고 씹씹거리고

다른 녀석은 엄마 배에 딱하니 다리를 올려놓았다.

아이들의 다리를 쓰다듬다가,

무심코 창박을 보니

오늘 밤에는 별이 더욱 찬란하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겠지

누구보다 더 빛나고 당당했을 아버지의 자리에……

장려상

너밖에 없다

이 청 우

편법과 불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기술이다. 지혜다. 처세다.
현수막처럼 시대에 걸어 호도하고 있다.
아아 고봉밥에 티스푼이 들어낸 밥풀이여

우체통 안 길 잃은 지갑이 잠든 오후2시
견습 후배의 호기심이 오토바이를 타면
용서치 못할 부정한 관계를 낳고
불륜이 자라 부패를 낳는다.

바른 사회란 때마다 밥을 먹듯
때마다 바른 마음이 필요하다.
마치 농부의 지극정성에
질리지 않은 벼를 생산하는 것처럼
청렴의 역사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회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갯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밭을 씻듯
이제나 저제나 마중물처럼
작은 불꽃 모아 모닥불 피우는 너

장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김 소 영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사막 위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보자.
같은 하늘 아래 이곳에도 비가 오면 참으로 좋으련만
작은 모래들이 모여 모래 돌풍 커져만 간다.

모래 돌풍 무관심 속에 사람들까지 집어삼켜
이곳에 혼자 남겨져 있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으련만
작은 씨앗들이 오로지 나를 온기로 안아준다.

씨앗을 뿌려라 멈추지 말고 뿌려라
너만이 지금 나에게 전부이다.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뿌리를 내려라.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라
너만이 지금 나에게 운명이다.

사람들의 탐욕, 부정, 혼탁들이 모여 시들어진 씨앗들이
셀 수 없이 커져만 간다.

다시 한번 씨앗을 뿌려라 멈추지 말고 뿌려라
사람들의 정직, 공정, 성실들이 모여 흡수하기 시작한다.

진실한 마음 전해져 모래 위에 작은 풀씨 돌아나기 시작한다.
온갖 까만 마음 뿌리치고 순수한 별들 따라가니
나무가 되어 나를 반겨주네.

더 이상 이곳은 혼자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곳은 사막이 아니구나.

메마른 땅 아래 하늘마저 기뻐 눈물을 흘려주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03 웹툰·카드뉴스분야

대상

추석에 온 손님

최우수상

부끄럽지 않도록!

우수상

받을 수 없어

내일로

아버지의 선택

장려상

부패와 바이러스

알파카의 꿈

종이 한 장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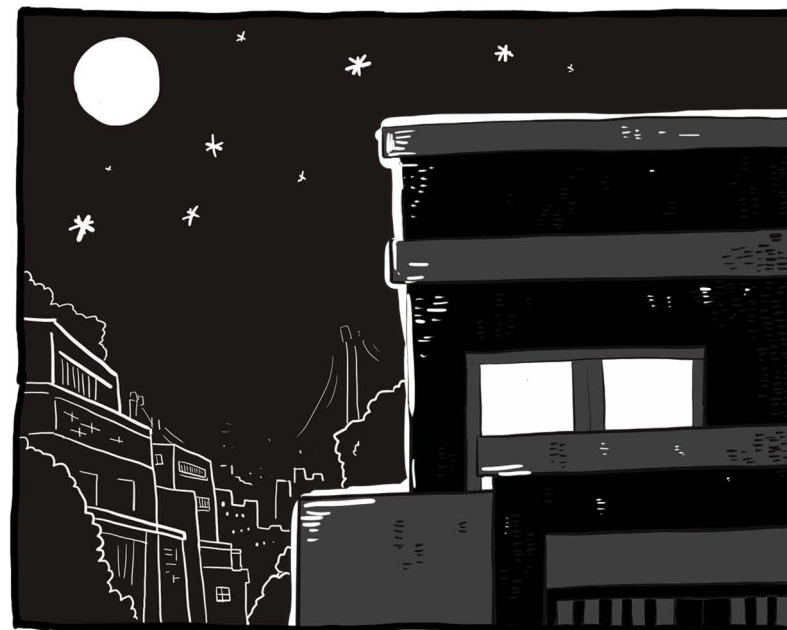
공직자 MBTI 유형별 저지르기 쉬운 부패 유형

한순간의 유혹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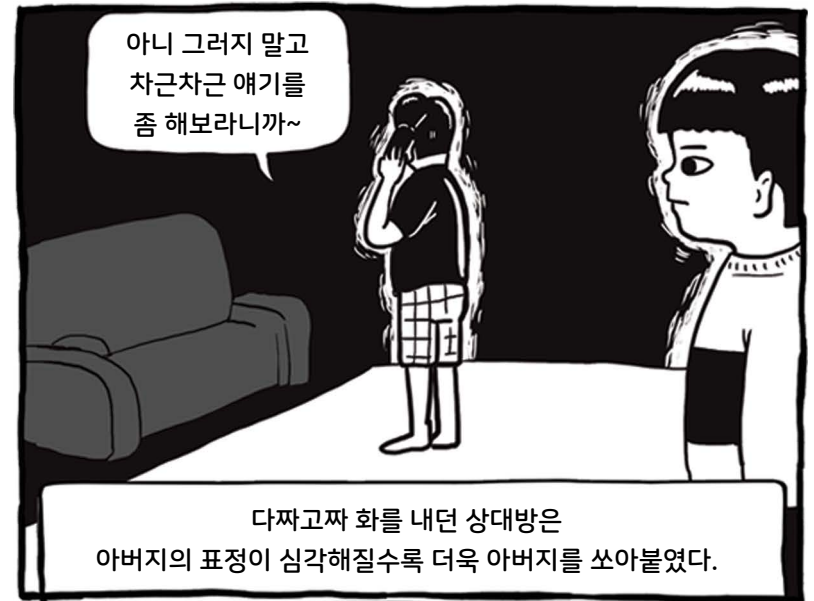
추석에 온 손님

조 승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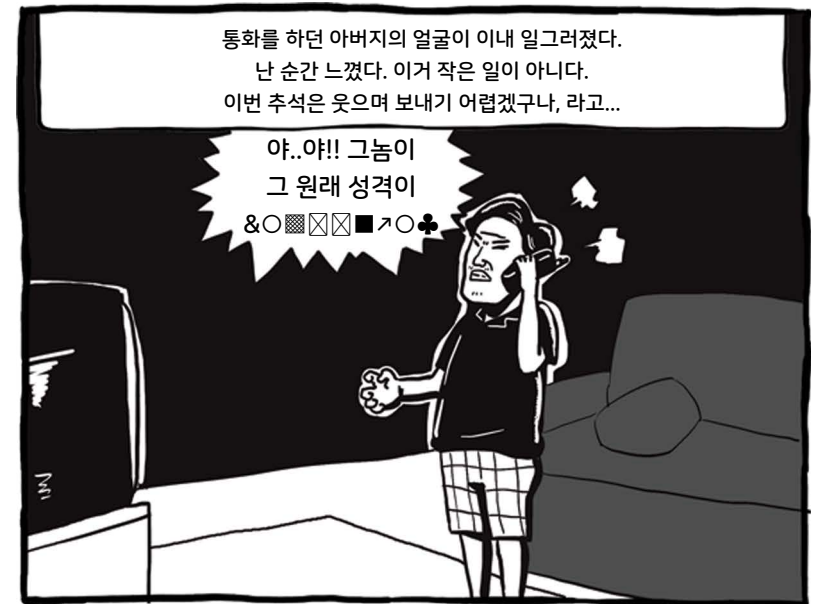
1996년 추석,
분주하게 차례를 준비하는 우리 가족에게
왠지 모를 불길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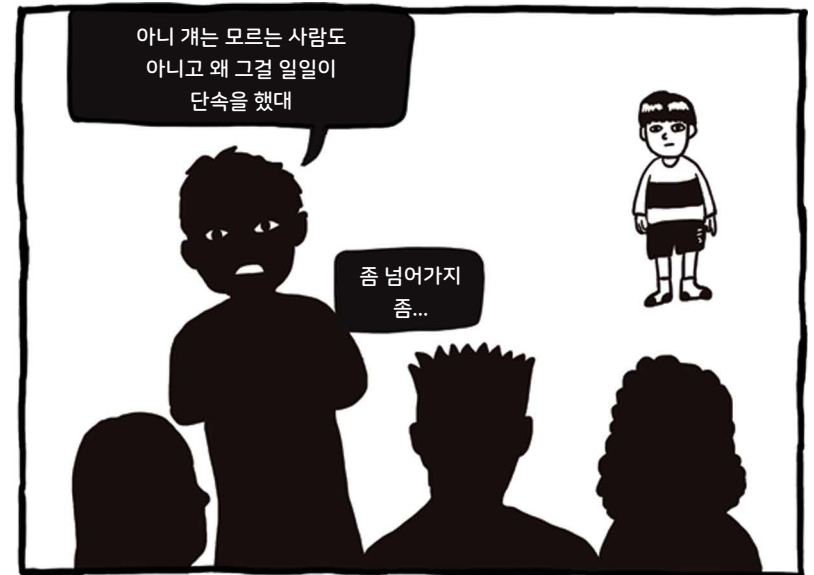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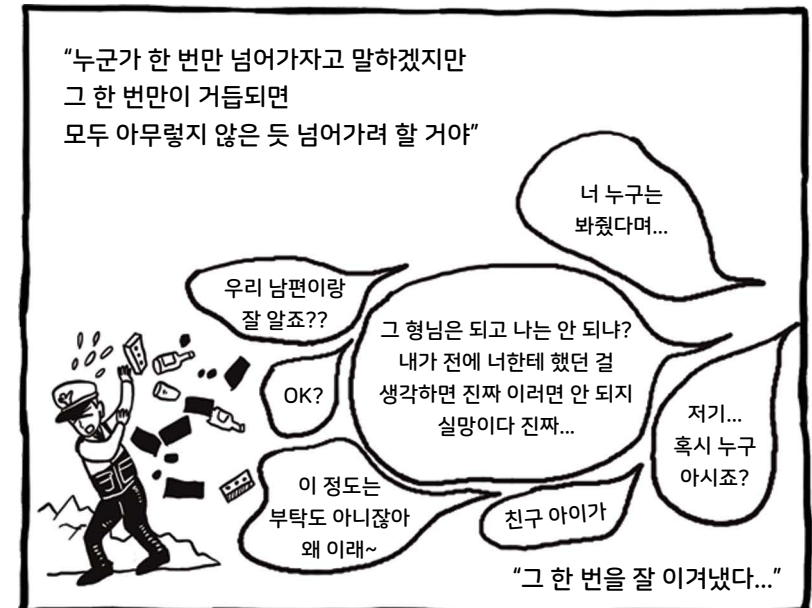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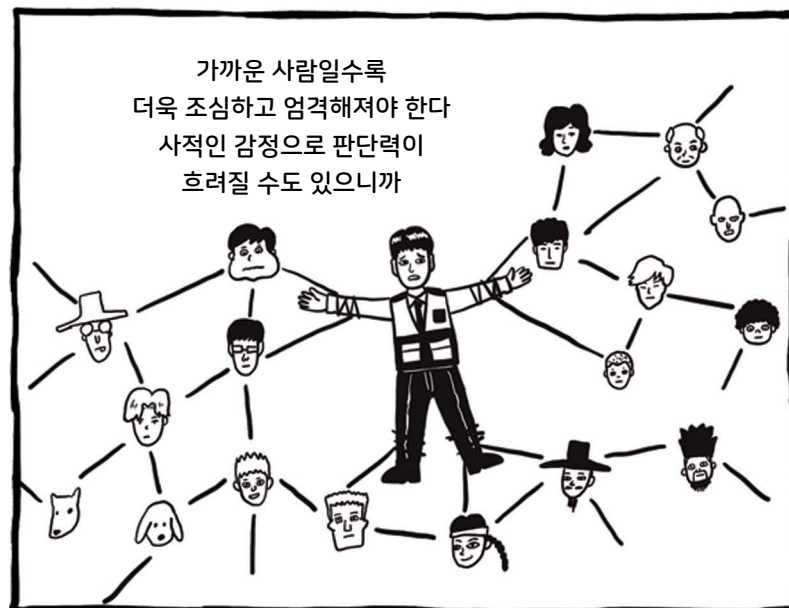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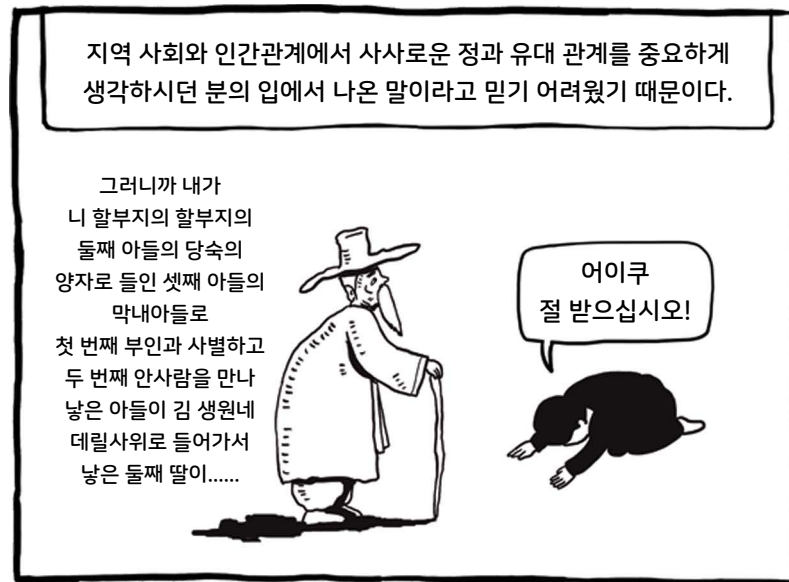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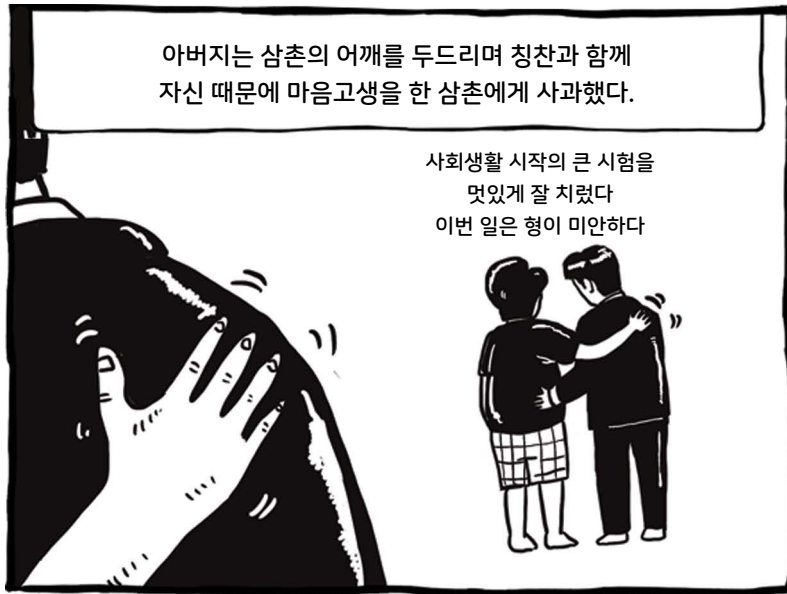












삼촌과 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훌륭한 일을
해낸 것만 같았다.



최우수상

부끄럽지 않도록!

엄 이 경

부끄럽지 않도록!

어느 자영업자의 이야기





난생처음 하는
장사가 어렵기도
했지만

가게는 금방
자리를 잡게
되었고



여기요! 사장님!
저 벌써 다 모았어요!

이러면 밀크티
무료 맞죠?!



여기 샌드위치도 맛있지만
밀크티가 진짜 맛있어요!
완전 중독이라니까요!

하하 감사해요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덧
단골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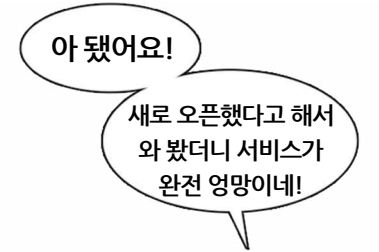
힘든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봉투값을
내라구요?

그럼 나보고 이걸
그냥 덜렁덜렁 들고
가란 소리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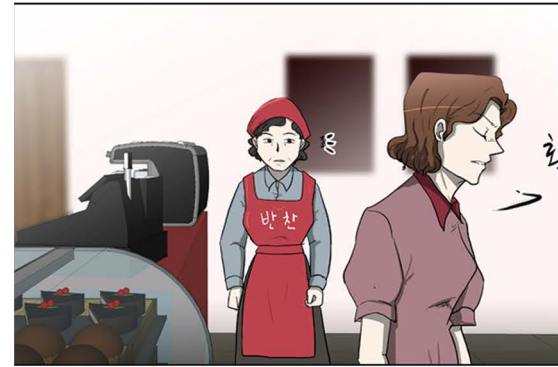


아.. 환경부담금으로
앞으로는 봉투값을..



아 됐어요!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와 봤더니 서비스가
완전 엉망이네!



과앙!



어이구 진짜 너무하네
1900원짜리 샌드위치 하나
사면서 봉투값 50원
아까워서 저러는 거야?!



근데 이 사장
봉투값 받으려고?

아 네.. 샌드위치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
봉투값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근데 정말 너무하네요..
봉투가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
사 오는 건데..

어휴~
마트 같은 데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봉투값
잘만 내면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에게 더
가혹하더라구! 더러워도
참아야지 뭐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다 동네 장산데..
동네 안 좋은 소문 나서
좋을 거 없어..

앞으로는 그냥
봉투값 안 받는 게
어때?

아무래도
그래야 할까 봐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싸게
팔아서 뭐가 남아..?

하하..
그,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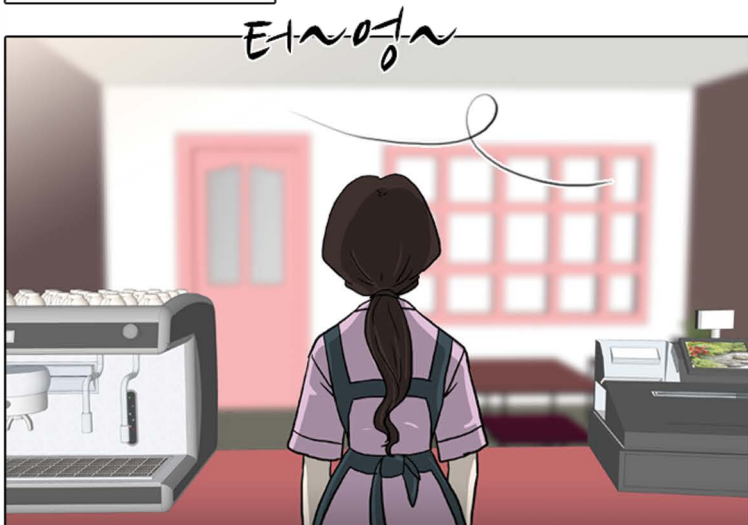
하지만..
절 정말 힘들게
만든 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이 바이러스의 타격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와..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구나..
밖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어라? 사장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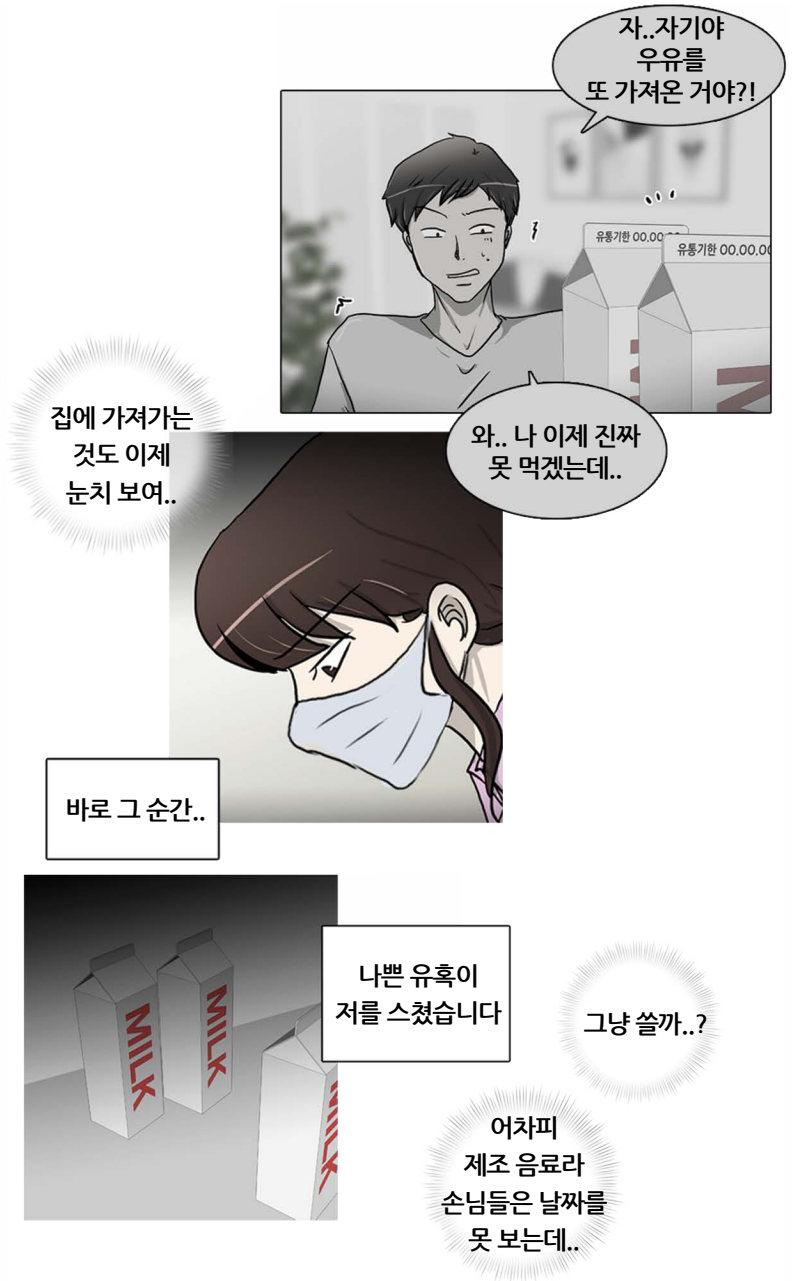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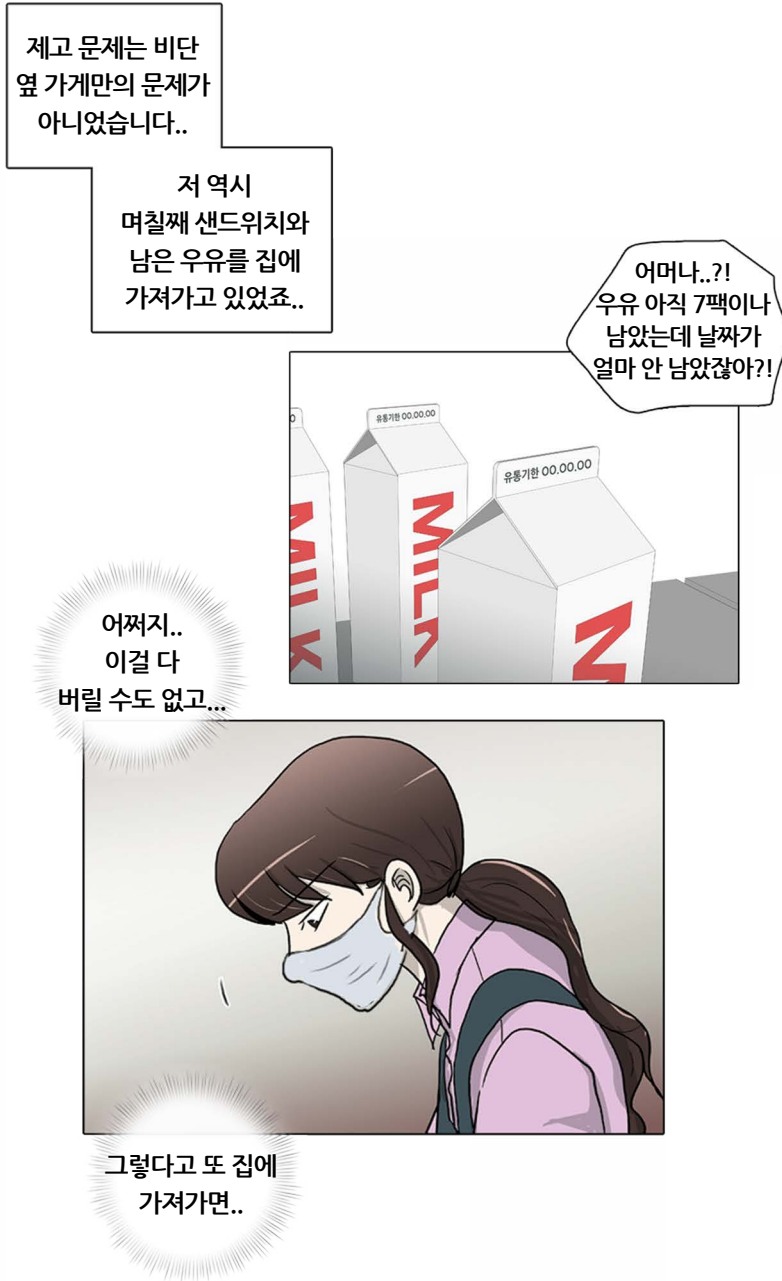


아 이 사장..

우리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가게 문 좀
닫아 둘까 봐...

매번 식재료
만들어 둔 거
쓰지도 못하고 버리고..
그렇다고
안 만들 수도 없고..
아주 죽겠어..

아.. 그럴겠네요..





아! 네!
자, 잠시만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뭐..뭐야?!
우유가 또 남은 거야?
자기야?!



으응..
그렇게 됐어..
조금만 참자 자기야..

내가 이걸로
맛있는 크림파스타
만들어 줄게!

손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치? 괜찮지?
우유 레시피를
더 찾아볼까 봐~

나 역시도
힘을 내고 있다고..
조금만 더 참고
함께 견디자고..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군가에게
뚝뚝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이웃들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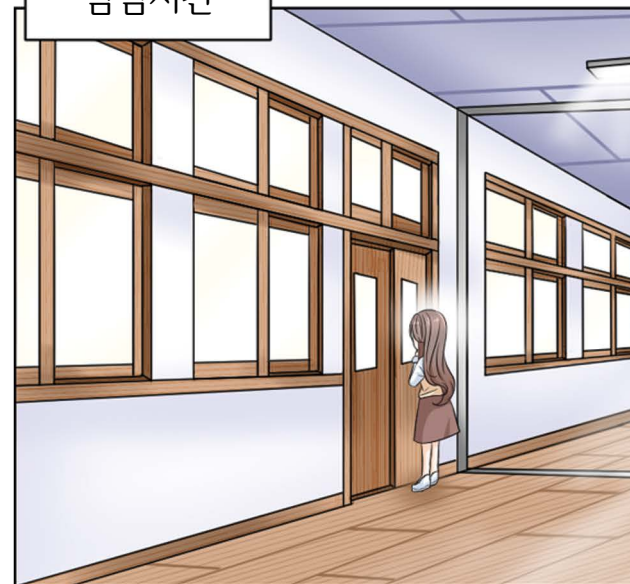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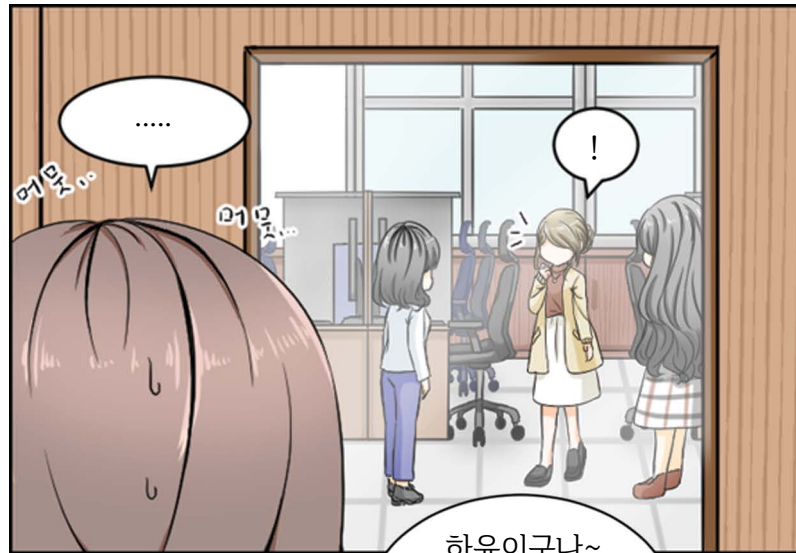
받을 수
없어

최 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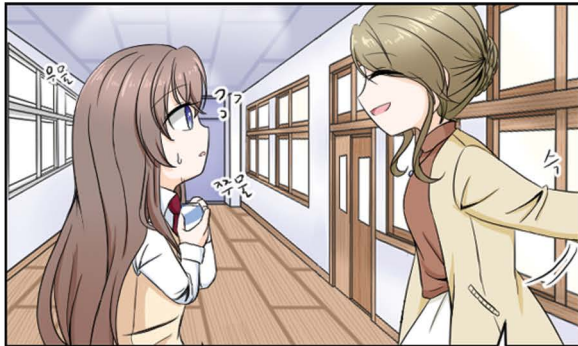


점심시간





하윤이구나~
점심시간인데
교무실엔
무슨 일이니?



어..저..
그게..
.....

.....일단
들어올래?



죄송해요.
식사하셔야 하는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건 그렇고,
무슨 일 있니?
저번에 그 애들이
또 괴롭히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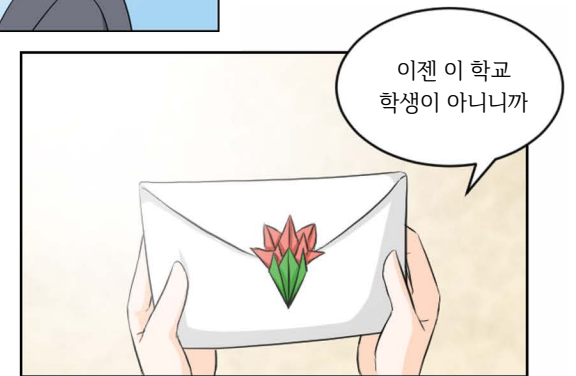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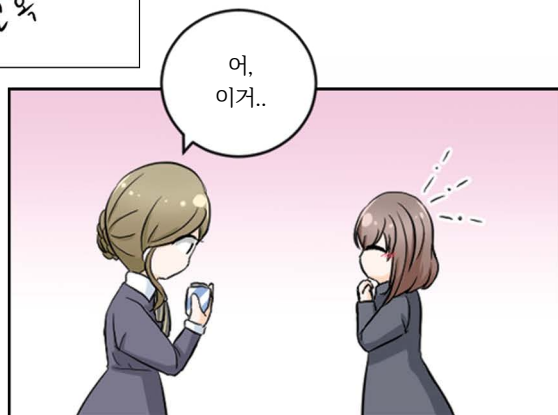
!
아뇨..!





며칠 후





우수상

내일로

이 동 수

담당 작가가 갑자기
핑크를 내서...

아, 그럼 제가
대신 써 볼게요.

내일로

주제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선택 쓰게 된 원고.
주제는 '청렴'이었다...

그럼 시작해 볼까?



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청렴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두 번째 인터뷰는 며느리와 함께
마실 나온 할머니였다.





다음은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 보았다.



이어서 난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회사 예산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회사 비품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 쓰고 품질 낮은 업체에서...



접대를 받고 계약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지요.

다수의 부정부패가 자연스레 부패문화로 자리 잡게 돼,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군요.



예, 그래서 청렴문화 정착에 사활을 걸게 됐지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정부패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수사례 보도 부패유발 규정 개정 아이디어

청렴한 일처리 서약

청렴도 측정 제도 도입

신고자 포상 및 보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방법을 만들어 청렴활동에 동참하고 실천으로 이어지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갔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거쳐 청렴도 꼴찌에서 1위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였지요.



청렴도 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룰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곧 기업의 명성과 자긍심,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모든 직원들과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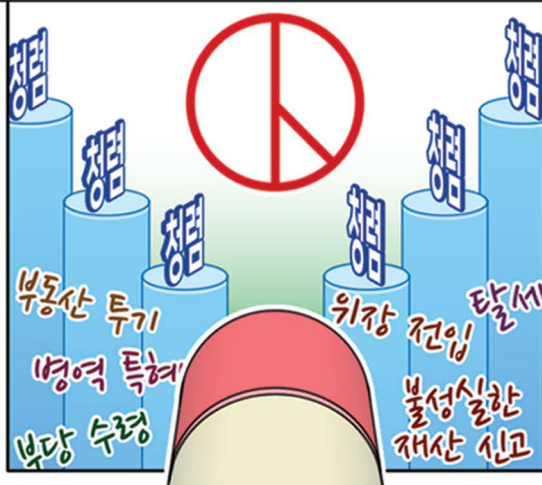
이번엔 국회의원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한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반성과 후회가 없는 자는 정치꾼에 불과합니다.



돈과 권력을 움켜쥐려는 그런 정치꾼은 이젠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됐지요!

과거 대한민국은 불법과 편법을
마치 하나의 처세술로
생각해 부정부패를 관행이란 핑계로...



청렴성을 갖고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정치가를 가려내고 뽑아 주는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서로 묵인해 주던
안타까운 시절을 거쳐 왔지요.

우리 청렴과 부정의 유혹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부정의 유혹이 느껴진다면 스스로 묻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청렴을 선택하게 됩니다.
청렴은 원칙의 믿음을
지켜 주는 힘이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청렴을
지켜 가는 우리 국민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이들도 자기들만의
눈높이 청렴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과거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늘 낙제점에 가까웠다.
고위 공직자, 기업, 군대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얼룩진 비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부패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의 행동을
거듭해 왔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청렴문화의 결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과거의 부정부패 문화에서
벗어나 청렴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때 잘못된 부정을
저지른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런 과거를
뉘우치고 청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기반성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청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세계는
우리나라의 청렴성에 감탄하며
배우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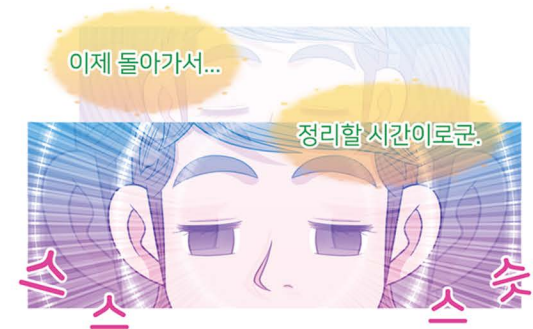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국민 모두가 청렴문화에
동참하고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청렴은 특정 계층과 특별한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성실함, 책임감, 공정함 등
개인의 청렴 실천이 곧 국가의 청렴문화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28년 9월 25일.
청렴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항상 밝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현재는...2020년 9월 25일.
아쉽게도 아직은...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

우리들의
청렴문화 실천은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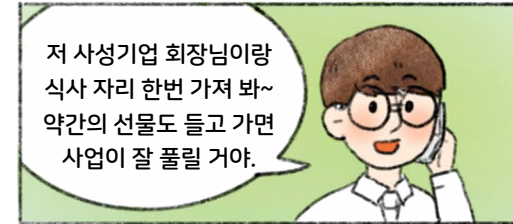
아버지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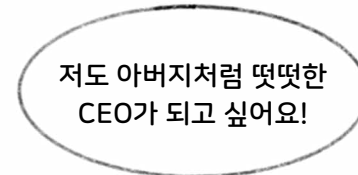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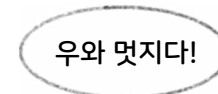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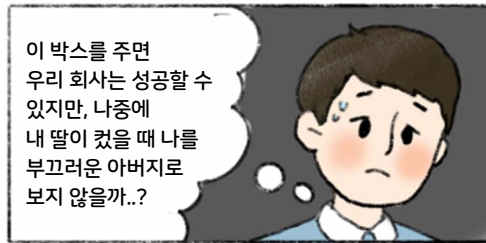
모 꼬 지 (전현아, 강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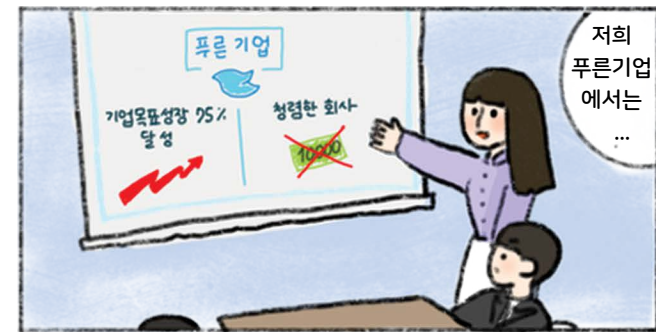




17년 전









청렴, 당신의 선택입니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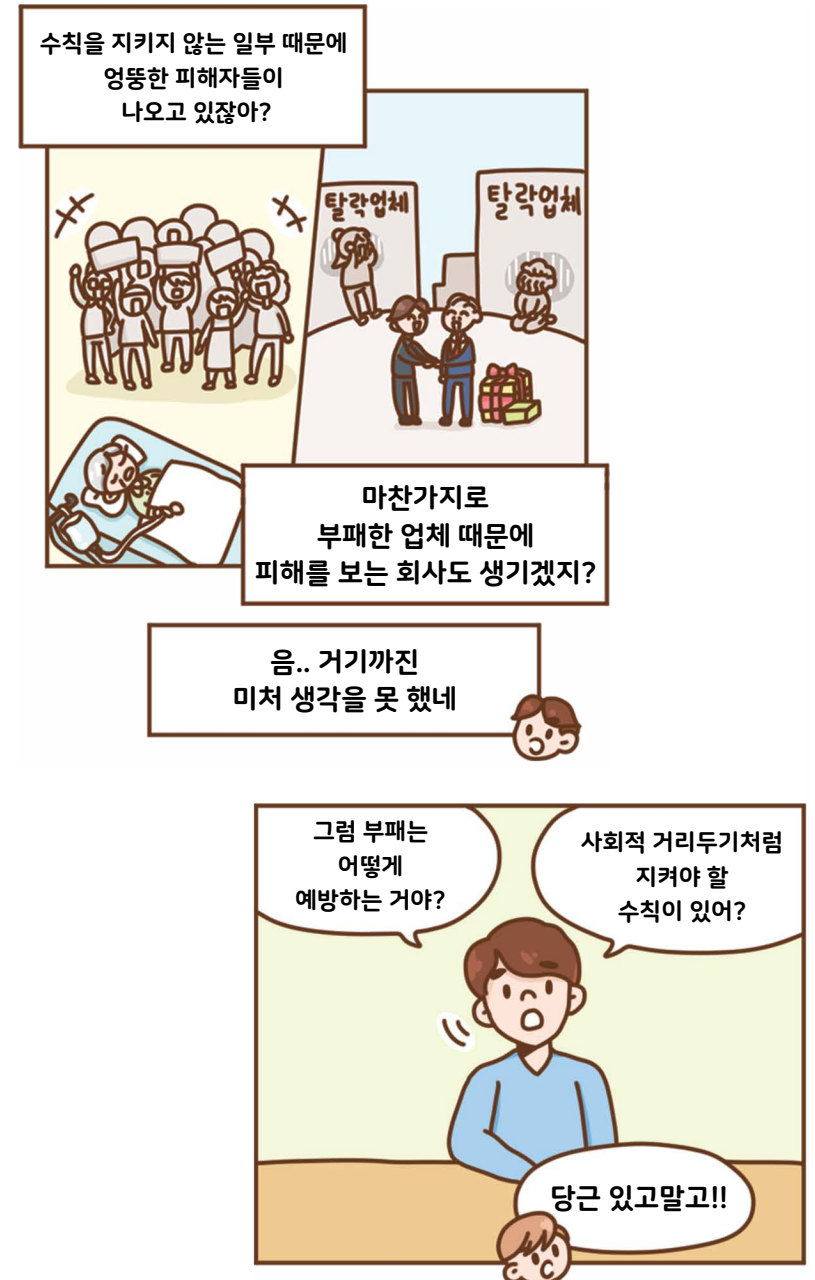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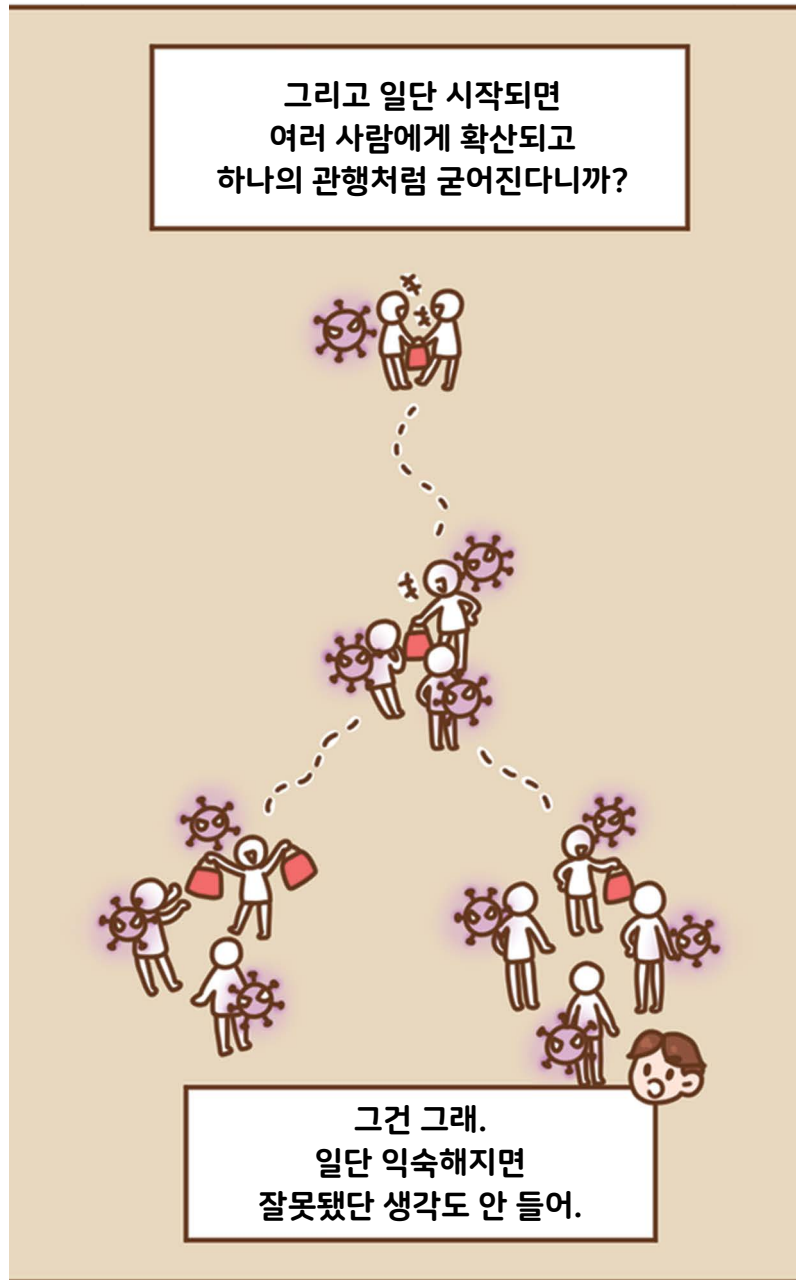
부패와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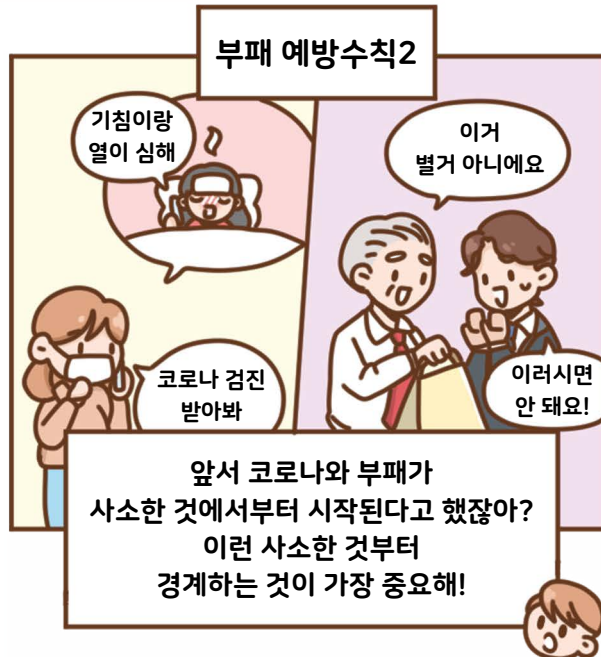
박재한

부패와 바이러스









장려상

알파카의 꿈

고 병 곤

알파카의꿈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전망 좋은 회사A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황금자소서로 취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 둘의 선택은?!



며칠 후



알파카는 회사A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듯이 더 많은 실력을 갖고 뒀아 다른 우수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퀴카는
우수한 성적으로
회사A에 입사했지만...



...이내 자소서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사문서 위조죄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END ~

장려상

종이 한 장 차이

어 찌 다 마 주 친 (조수연, 김진성)

종이한장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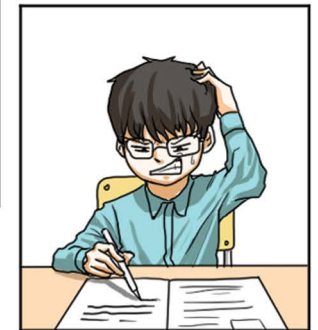


2015년, 설레는 어느 봄날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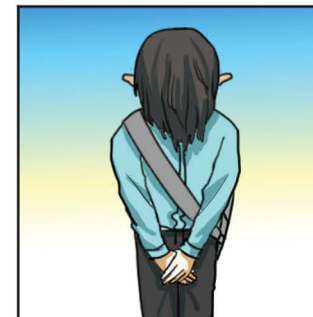
그러다 우연히
학보사 모집공고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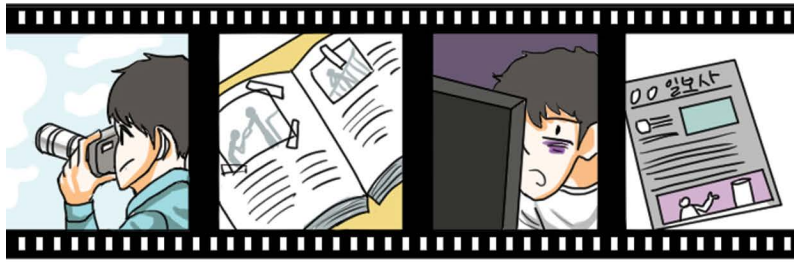
자유로운 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 보도!
안녕하세요, 청렴대학교 수습기자
김계산입니다!



5:1의 경쟁률을 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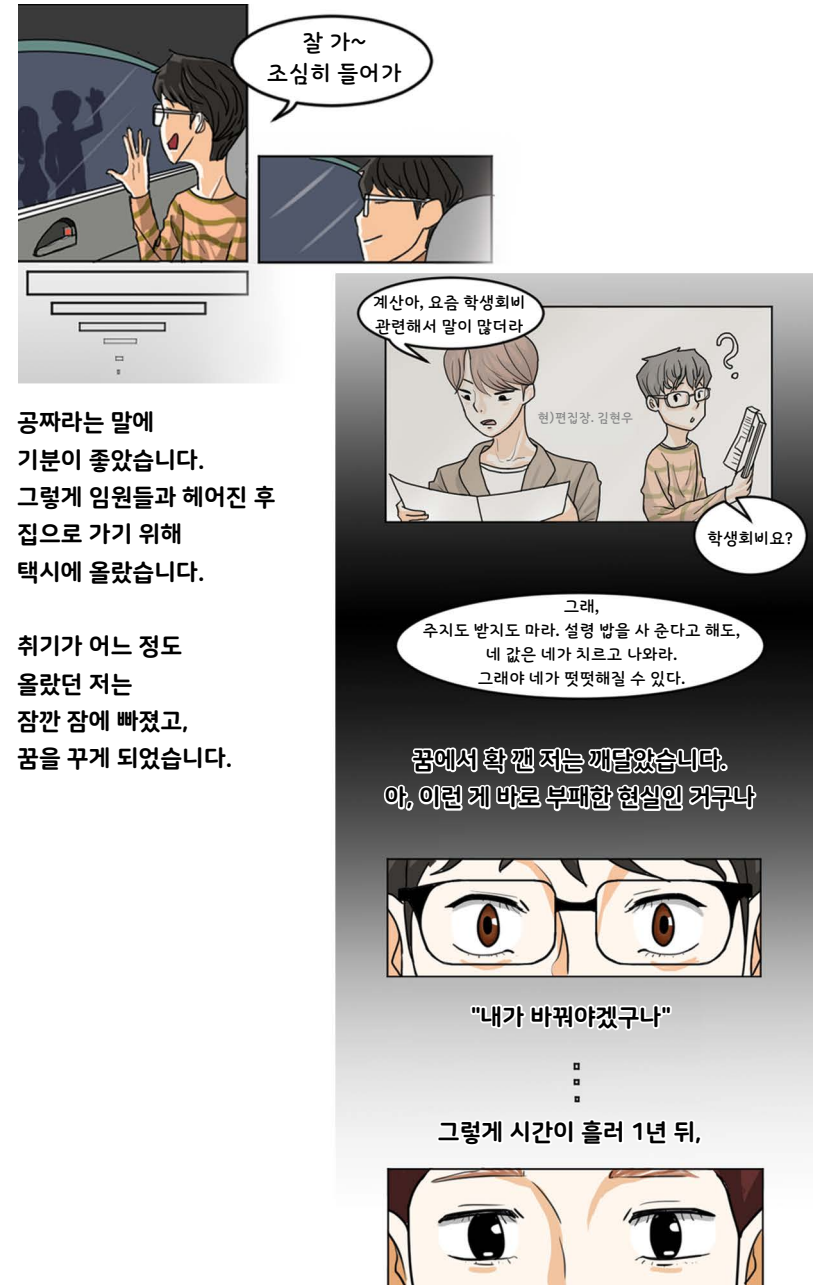
그렇게 학보사
수습기자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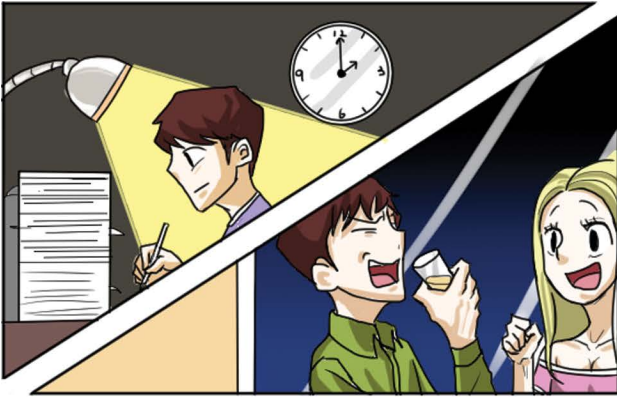


촬영, 편집, 글쓰기 삼단콤보의 과정을 거쳐 한 학기 동안 신문을 발행한



저의 노고를 알려주신 걸까요?
교수님께서 상을 하나 던져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회 임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신나게 먹다 보니 어느새 마무리가 되어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장이 된 저는 업무와 술자리를 수없이 가졌습니다.
술자리에는 학생회 임원, 학교 관계자들도 있었으며,
오래 기사 좀 잘 써 달라, 사소한 건 넘어가 달라는 등
청탁이 아닌 청탁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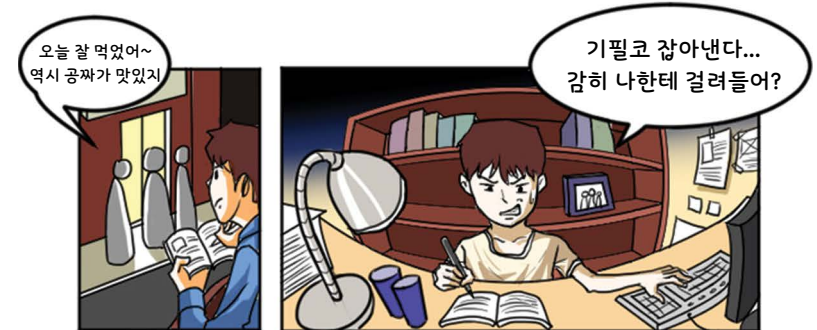


일부 학생회 임원이 국가근로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을 착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의 주인에게 가야 하는 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취재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생회에서의
근로장학금 착복,
회수해야 할 금액이
특정 계좌로 입금되는 등
생각지도 못한 큰돈이
어둠의 수로로 흘러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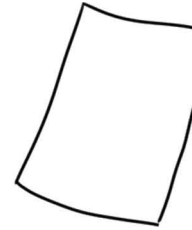




저는 당장 기사화를 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학생회의 한 임원은
저에게 찾아와 뻔뻔하게 청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로 제 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거나, 신상을 알아내
문자로 협박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당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학생회 임원들에게 가차 없는 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편집장 형의 말을 되새기지 않고
술을 얻어먹고 다녔다면,
저도 이해관계에 얽혀 같은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까요?



저는 이제 편집장의 임기를 마쳐 학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정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이지만
적어도 후배들에게는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 앞에 부패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을 밝히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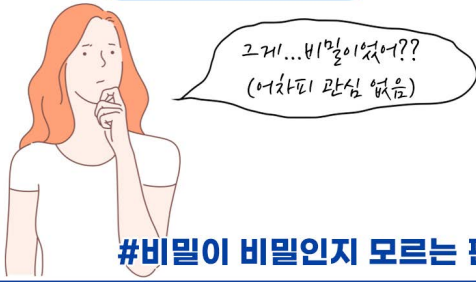
장려상

공직자 MBTI 유형별 저지르기 쉬운 부패 유형

오 해 리



TP형



#비밀이 비밀인지 모르는 편

나도 모르게 비밀 누설

TP형은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따라서 논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며, 직무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비밀이 될 논리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TP형들에게 비밀이 아니다.

MBTI 4가지 척도


E	← 외향형 단체 선호	에너지의 방향	→ 외향형 혼자 선호	I
S	← 감각형 숲보다 나무	인식 방식	→ 직관형 나무보다 숲	N
T	← 사고형 효율 중시	결정 방식	→ 감정형 감정 중시	F
J	← 판단형 계획적	삶의 패턴	→ 인식형 즉흥적	P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

그러나 청탁금지법 5조 1항 6호는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청탁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청탁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도록 하자.

FJ형



#결혼 #장례 #칠순 #돌잔치

경조사 끝판왕

FJ형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다.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심하다. 대신 정이 많은 유형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경조사를 챙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 대해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결혼과 장례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직자의 생일이나 승진·돌잔치 등은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에는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 경조사는 조금만 챙기자!

FP형



백인싸

FP형은 일을 진행하며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백인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FP형의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사람들에게 퍼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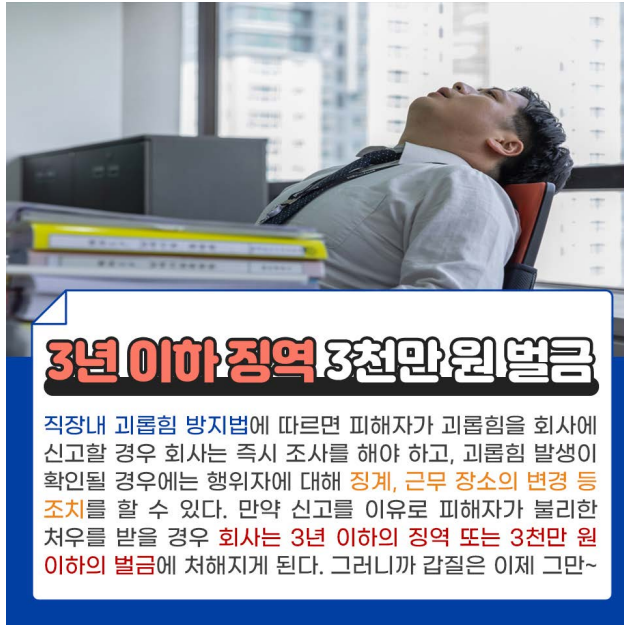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오랜만에 모인 동네 친구 사이라도 이들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누구든지 **3만 원이 넘는 밥이나 술을 한턱 쓰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액의 2~5배가 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 좋아하는 FP 유형들은 특히 주의하자!

TJ형



라떼는말이야

TJ형은 확고한 지도자 유형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의지가 강하고, 분석적이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 스타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진력으로 인해 때로는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도 TJ형이다.



장려상

한순간의 유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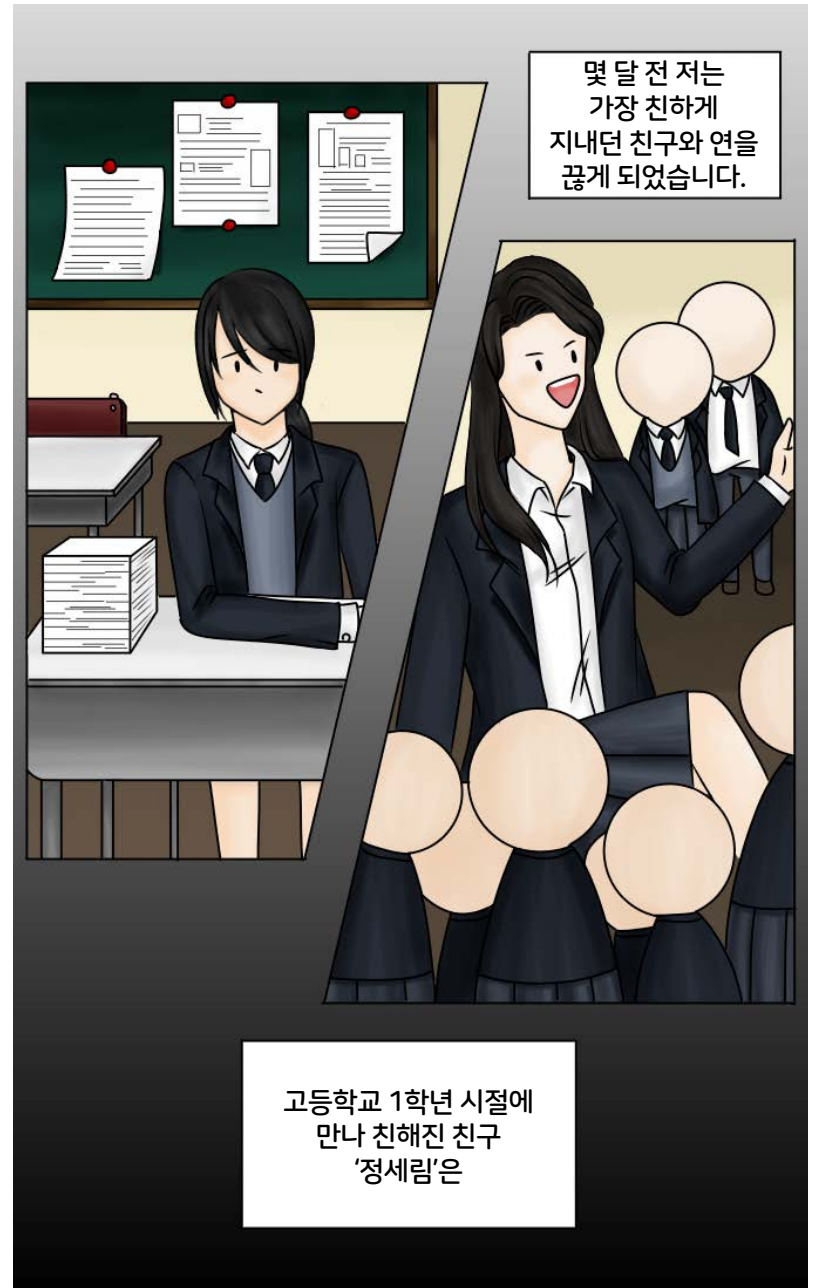
강 다 윤



저는
선구대학교에 다니는
박도원입니다.



몇 달 전 저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만나 친해진 친구
'정세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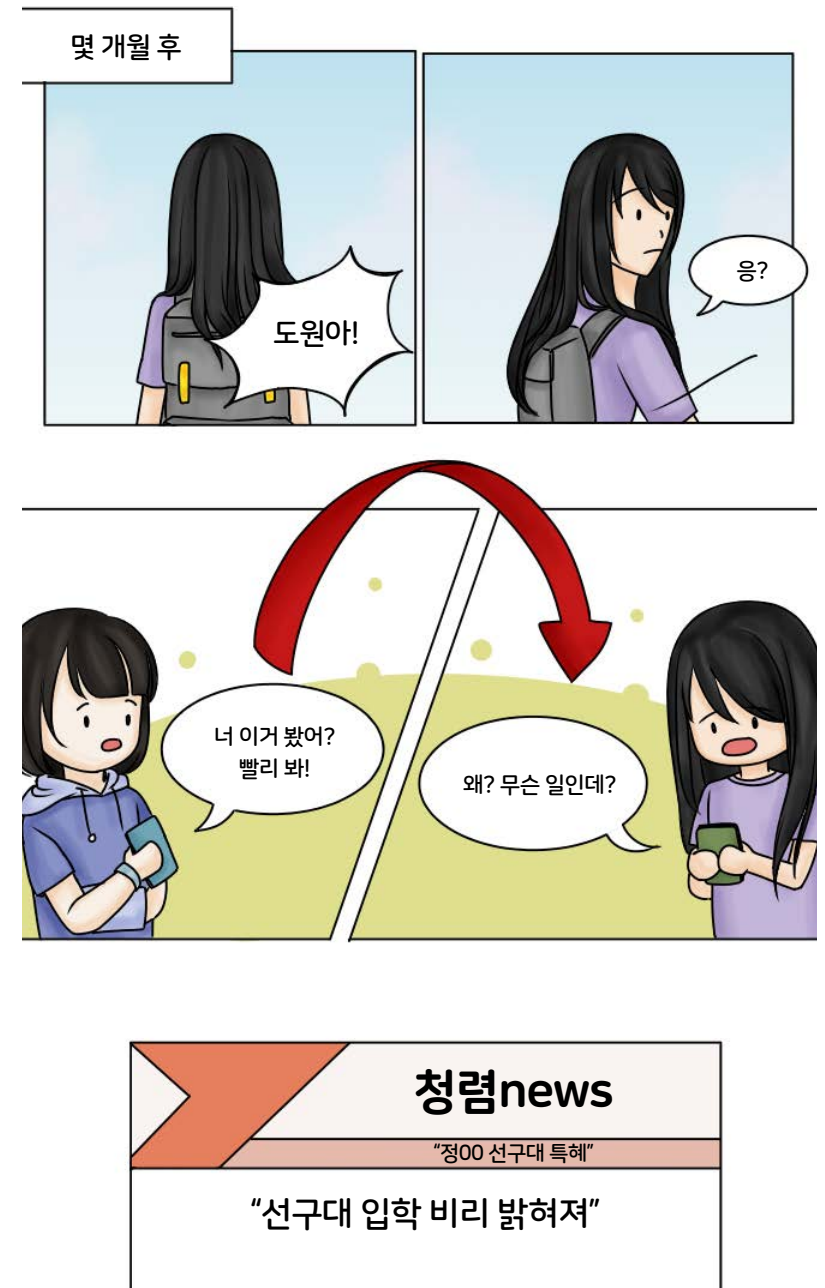














세림이는 부정 입학과
뒷돈 거래가 밝혀져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친구의 말에
넘어가지 않은

저 자신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청렴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발행인

이향노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디자인

(주)대학내일

청렴연수원

(2867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수곡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www.edu.acrc.go.kr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www.integritycontents.kr

본 수상작품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